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103-

한동안은 누가 나를 쳐다보고 수군거리기만 해도 엄마 이야기라고 지레짐작했으며 남에게 그것을 눈치채이기 싫어서 짐짓 고개를 숙여 버리곤 했다. 그러나 바로 그렇게 남에게 관찰당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나는 누구보다 일찍 나를 숨기는 방법을 터득했다.

누가 나를 쳐다보면 나는 먼저 나를 두 개의 나로 분리시킨다. 하나의 나는 내 안에 그대로 있고 진짜 나에게서 갈라져 나간 다른 나로 하여금 내 몸 밖으로 나가 내 역할을 하게 한다.

내 몸 밖을 나간 다른 나는 남들 앞에 노출되어 마치 나인 듯 행동하고 있지만 진짜 나는 몸속에 남아서 몸 밖으로 나간 나를 바라보고 있다. 하나의 나로 하여금 그들이 보고자 하는 나로 행동하게 하고 나머지 하나의 나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때 나는 남에게 ‘보여지는 나’와 나 자신이 ‘바라보는 나’로 분리된다.

물론 그중에서 진짜 나는 ‘보여지는 나’가 아니라 ‘바라보는 나’이다. 남의 시선으로부터 강요를 당하고 수모를 받는 것은 ‘보여지는 나’이므로 ‘바라보는’ 진짜 나는 상처를 덜 받는다. 이렇게 나를 두 개로 분리시킴으로써 나는 사람들의 눈에 노출되지 않고 나 자신으로 그대로 지켜지는 것이다. 진짜의 나 아닌 다른 나를 만들어 보인다는 점에서 그것이 위선이나 가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적은 있다. 꾸며 보이고 거짓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나를 두 개로 분리시키는 일은 나쁜 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내가 ‘작위’라는 말을 알게 된 뒤부터 그런 의혹은 사라졌다. 나의 분리법은 ㉠ 위선이 아니라 ㉡ 작위였으며 작위는 위선보다 훨씬 복잡한 감정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부도덕한 일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아는 **어른들의 비밀**을 털어놓는 데에 나는 아무런 거리낌도, **빚진 마음**도 갖고 있지 않다.

[중략 부분 줄거리] 이모는 군인인 이형렬과 펜팔을 하게 되고 할머니의 눈을 피해 편지 전하는 일을 ‘나’에게 시킨다.

그러나 일단 그 관문만 지나면 어려운 단어나 비유법 없이 평이한 문장이 죽죽 나열되므로 아주 읽기가 편하다는 것이, 짧다는 사실과 함께 그의 편지의 장점이었다.

내용을 간추려 본다면 대강 이런 이야기였다.

나, 이형렬은 서울에서 사업을 하는 이 아무개 씨의 2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나이는 22세. 대학에서의 전공은 토목과. 누나는 시집을 갔고 형은 가업을 물려받기 위해 아버지의 회사에서 사회 경험을 쌓는 중이다. 장래 소망은 전공을 살려 토목 회사에 취직을 하거나 공부를 계속하여 교수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고리타분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으며 결혼을 빨리 해서 가정을 이룬 다음부터는 아내와 함께 테니스도 치고 여행도 다니며 즐겁게 살 계획이다. **[A]** 다룰 줄 아는 악기는 하모니카이고 취미는 오토바이 타기인데 애인을 뒷자리에 태우고 숲길을 썸 달려 보는 게 오랜 꿈이었지만 아직 애인이 없어서 그렇게 해 보진 못했다. 그동안은 공부밖에 몰랐고 아직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여자를 사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옥 씨의 사진을 받아 보고 특히 눈이 아름답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동안 영옥 씨의 편지를 받아 볼 때마다 어찌면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졌을까 깜짝 놀라고 말았다. 아름답고 순수한 영옥 씨를 알게 된 것은 신의 은총이다……

이모가 편지를 쓰는 시간은 대개 할머니가 잠든 밤이었다. 할머니는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들어오면 연속극을 듣기 위해 라디오 앞에 앉곤 했다. 하지만 초저녁잠이 많아서 그 좋아하는 연속극을 언제나 끝까지 듣지 못하고 코를 고는 것이었다. 할머니

는 귀로 듣기만 하면 되는 라디오인데도 연속극 시간에는 다른 일을 모두 폐하고 꼭 그 앞에 바짝 앉아 굳이 라디오를 쳐다보면서 연속극을 들곤 했다. 그렇게 보고 있지 않으면 그 사이에 이야기가 그냥 지나쳐 버리기라도 한다는 듯이 라디오에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정작 중요한 대목에서 할머니 쪽을 쳐다보면 대개는 곤하게 잠이 들어 있기 일쑤였다. 내가 할머니를 흔들면서 “할머니, 할머니! 들어 보세요. 지금 드디어 그 딸이 엄마하고 만났어요. 지금요!”라고 연속극의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면 그토록 중요한 순간에 잠이 들어 버렸다는 데 무안해진 할머니는 전혀 졸지 않았던 사람처럼 목소리를 높게 내며 “나도 안다, 알어” 하고 눈꺼풀에 힘을 주지만 조금 있다 보면 어느새 또 푸푸, 하는 일정한 리듬의 숨소리를 내며 도로 잠들어 있었다.

할머니의 초저녁잠이 그렇게 깊었기 때문에 이모는 마음껏 금지된 편지를 썼고 나는 그동안 이모가 우리 미장원에서 빌려온 『선데이 서울』을 뒤적이고 있다가 이모가 맞춤법이나 표현에 대해서 물어 오면 자문관 역할을 해 줄 수 있었다.

이모가 이형렬에게 보내는 편지는 대충 이런 식으로 이형렬이 이모에게 보내는 편지와 사이좋은 대구를 이루었다.

나, 전영옥은 경찰 고위직에 있었던 전 아무개 씨의 1남 1녀 중 막내이다. 오빠는 현재 법대 3학년이고 어머니가 농업과 건축업(가갯집 세놓은 일을 표현할 고상한 말을 찾던 이모는 집과 관계된 직업 중에 이 말이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했다)에 종사한다. 아버지가 6·25 때 순직하여서 국가유공자 집안이다. 나이는 21세.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지만(이 사실은 나도 처음 듣는 일이었지만 이모가 원서를 낸 것까지는 사실이라고 얼굴을 붉혀 가며 주장했다기 때문에 **[B]** 더 이상 진위를 가리지 않기로 했다) 어머니 곁을 떠날 수 없어 학업을 포기하고 고향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성격이 조용하여 취미는 독서와 음악 감상이고 장래 소망은 현모양처. 남자 친구는 전혀 없으며 기회는 많았지만 집안이 엄격하여 교제를 해 보지 못했다. 좋아하는 계절은 가을, 좋아하는 꽃은 ‘나를 잊지 마세요’라는 꽃말을 지닌 물망초. 그리고 이상적인 남성형은 변함없이 나를 아껴 주는 진실한 남성.

그러나 이모의 편지가 언제까지나 이런 입문 단계에 머물렀던 것은 아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모의 편지는 점점 센티멘털하게 변해 갔다. 그러더니 그리움이라는 단어가 이따금 눈에 띄고 애절한 구절이 많아진다 싶을 무렵부터 더 이상 편지를 보여주지 않았다. 그때부터는 표현에 대한 자문도 구하지 않았고 그런 **형식적인 포장을 극복**할 만큼은 **이형렬과의 관계**가 발전한 것인지 맞춤법을 물어 오는 일도 거의 없어졌다. 이제 그에게서 온 편지도 보여주지 않았다.

그래도 편지를 전해 주는 일은 여전히 내 소관이었으므로 나는 여전히 **이모의 비밀**을 **헛바닥 밑에 감추고** 있는 셈이었다.

- 은희경, 「새의 선물」 -

1. [A]와 [B]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와 달리 [B]는 간추린 편지의 내용에 서술자가 알고 있는 관련 내용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② [B]와 달리 [A]는 서술자가 편지의 내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③ [A]와 [B]는 모두 서술자가 편지의 내용에 논평을 곁들이는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④ [A]와 [B]는 모두 편지 속에 숨겨진 비밀을 서술자가 하나씩 밝혀 가는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⑤ [A]는 서술자가 과거에 본 편지 내용을 회상하는 방식으로, [B]는 서술자가 현재에 편지를 읽어 가는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2.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남들이 엄마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 자신이 신경 쓰고 있는 모습을 들리고 싶어 하지 않았다.
- ② ‘나’는 이형렬의 편지가 짧으면서도 어려운 단어가 없어서 읽기에 편하다고 느꼈다.
- ③ 할머니의 초저녁잠은 이모가 할머니의 눈을 피해 마음껏 편지를 쓰는 데 도움이 되었다.
- ④ 이모는 이형렬의 사진을 보고 그의 외모가 자신의 이상형에 가깝다는 것을 편지에 솔직하게 표현하였다.
- ⑤ 이모는 편지에 애뜻한 표현이 많아진다는 것을 무렵부터 편지의 표현에 대해 ‘나’에게 자문을 거의 구하지 않았다.

3.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새의 선물」의 주인공은 열두 살밖에 안 된 소녀이지만 아이답지 않은 시선으로 어른의 세계를 관찰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내면을 감춘 채 어른들의 가식적인 세계를 드러내는 것이 부도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은 성장 과정에서 자신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주변 세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수단과 관련이 있다.

- ① ‘누구보다 일찍 나를 숨기는 방법’을 터득했다고 한 것은, ‘나’가 자신의 내면을 어른들에게 보여 주지 않기 위해 일찍부터 노력해 온 결과로 볼 수 있겠군.
- ② ‘남의 시선으로부터 강요를 당하고 수모를 받는’다고 느끼는 것은, ‘나’가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해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과 관련이 있겠군.
- ③ ‘어른들의 비밀’을 털어놓는 데 ‘빚진 마음’이 없다고 한 것은, ‘나’가 자신이 한 행위를 부도덕한 것이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이겠군.
- ④ 이모의 편지에 대해 ‘형식적인 포장을 극복’했다고 평가하며 ‘이형렬과의 관계’가 깊어졌으리라고 짐작한 것은, ‘나’가 아이답지 않은 시선으로 어른의 세계를 관찰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⑤ ‘이모의 비밀을 헛바닥 밑에 감추고 있는 셈’이라고 한 것은, ‘나’가 어른과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는 것이 자기를 방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군

4. ㉠과 ㉡를 통해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보여지는 나’가 받았던 상처가 ㉠를 통해 치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② ‘나’는 ㉠로 인해 발생한 의혹을 ‘바라보는 나’와 ‘보여지는 나’로 ‘나’를 분리함으로써 해소하고자 한다.
- ③ ‘나’는 ㉡로 인해 ‘바라보는 나’와 ‘보여지는 나’ 사이의 내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④ ‘나’는 ‘나 아닌 다른 나’를 만든 것을 ㉠가 아닌 ㉡로 규정함으로써 심리적 부담감에서 벗어나게 된다.
- ⑤ ‘나’는 ㉠보다 복잡한 감정인 ㉡가 ‘나 아닌 다른 나’에 대한 주변의 비난을 더 많이 받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5-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104-

책임량을 완수하지 못하면 일당을 제하고 말겠다며 반장을 चे쳐 놓고 관리과 직원들이 작업 감독을 했다. 찌소리 한마디 못하고 일손들을 재게 놀리면서도 가슴마다에는 ㉠떡구름이 끼고 비가 내렸다.

그들 셋은 약속이나 한 듯이 다리를 내뻗고 등을 벽에 기대 몸을 부린 채 말이 없었다. 피곤에 지쳐 풀려 버린 눈에는 물기에 젖은 절망의 빛이 서려 있었다.

㉡분옥이는 가슴을 와득와득 쥐어뜯고 싶었다. 오만 오천 원. 삼 년에 걸쳐 모은 그 돈이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 떼어먹혀? 그게, 그게 어떻게 번 돈인데, 차라리 식칼을 물고 엎어져 죽는 한이 있어도 그것만은 안 된다. 만 오천 원만 더 모으면 그 가슴 조이던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칠만 원으로 육 개월간 미용 학원엘 다닌다. 그리고 어엿한 미용사가 된다. ‘시다’가 아닌 흰 가운을 입고 빨간 매니큐어 칠한 미용사가 된다. 가지가지 모양의 머리를 만들어 내는 기술자가 되고 단골을 잡고 고정적인 월급에 후한 팁을 받아 차곡차곡 모아 독립을 한다. 그때는 미장원 주인, 아니 미장원 마담. 여기에 이르면 분옥이는 그만 가슴이 펴떡이고 전신이 짜릿짜릿해지는 것이다. ㉢정신은 아물아물해지며 몸이 뽕뽕 뜨는 것이 타 보지 못한 비행기 타는 맛이 이러랴 싶었다. 그런데 그 돈을…….

봉자의 마음은 이 년 전 새벽에 집을 도망쳐 나오던 꼭 그런 허망한 기분이었다. 순심이의 편지만 믿고 서울 돈벌이를 작정한 나머지 겨울 새벽길을 더듬어 걸으며 왜 마음은 그리도 텅 빈 들녘처럼 허망했을까. 생전 처음 부모 곁을 떠나 말만 들은 서울로 가기 때문이거니 했지만 기차를 타고서도 그 허망한 기분은 가시어지질 않았다. 그때 되돌아서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 허망했던 기분은 서울역에 내려서 두 눈을 뒤집고 찾아도 보이지 않던 순심이를 원망하면서 절망으로 변했다. 그 절망은 견딜 수 없는 향수였다. 그러나 그 짙은 향수는 돈벌이를 강요했다. 돈을 벌지 않고서는 얼굴을 들고 돌아갈 수 없는 집이었다. 집을 뛰쳐나온 변명의 구실이 없었다. 그동안 삼만 원을 모았다. 그걸 남들처럼 회사에 넣어 이자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그 돈이 그렇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다. ㉣8월 초순, 여름인데도 마음은 꼭 겨울 새벽의 텅 빈 들녘처럼 허허할 뿐인 것이다. 누구 누구처럼 별 계획도 없었다. 오만 원만 모아지면 그걸 가지고 고향에 돌아가리라 했다.

길순이는 자꾸 울음이 터질 것만 같았다. 홀로인 어머니 얼굴이 어른거렸다. 열일곱에 떠난 고향. 스물한 살이니까 어느덧 사 년째가 되었다. 봉자나 분옥이보다 오래되었으면서도 그네들과 같이 지옥탕(염색한 천을 행귀 내는 첫 번째 탕을 그렇게들 불렀다.)에 발을 담그고 있는 것도 다 돈 때문이었다. 세월을 따라, 회사 규정대로 했다면 지금쯤은 신선놀이(건조된 직물을 손질하는 부서)를 하고 있을 터였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었다. 진종일 지옥탕에 무릎까지 담그고 서서 염색 물감의 독에 살갗이 썩거나 습진으로 발가락 사이가 짓물러도 우선 돈이 필요했다. 신선놀이를 하는 축들이나 분옥이, 봉자보다 삼분의 일이 더 많은 수입을 떼쳐 낼 수는 없었다. 그래서 분옥이나 봉자보다도 장판지 살갗이 험하게 부르트고 습진도 고질이 되어 버린 것은 어찌지 못할 일이었다. 그러니 지옥탕에서 견디는 것도 금년뿐, 내년부터는 별수 없이 신선놀이를 하게 되어 있었다. 금년 초에 벌써 회사 측에서는 신선놀이를 명령했었다. 인건비 낭비를 막기위함이었을 것이다. 관리계장에게 사정사정해서 금년까지만이라는 허락을 겨우 받을 수 있었다. 어머니는 늙고 두 동생은 어리고……. 한 달에 만 사천 원 월급에서 자취비, 사글셋방 값, 이십사 개월 오만 원짜리 갚돈 등을 제하고 나면 회사에 맡긴 칠만 원에서 나오는 삼 부 오 리의 이자를 합해도 집에 사천 원을 송금하기에는 숨이 가빴다. 이자도 못 받고 원금도

뭉이고……. 길순이는 또 목젓이 아프도록 침을 삼켰다. 곧 울음이 터질 것만 같은 것이다. 당장 다음 달부터 어머니와 두 동생은……. ㉤자꾸 눈시울이 매워져서 한사코 눈길을 천장으로 올렸다.

[중략 부분 줄거리] 여공들은 자신들이 회사에 맡긴 돈과 관련된 사채 동결에 대한 정부 정책 기사를 보게 된다. 이 기사를 읽은 후 경리과로 가서 경리과장의 말을 듣는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들 각자가 회사에 맡긴 액수는 적고 사람 수는 백칠십여 명에 달하여, 개인당 서류를 꾸며 사장님께 결재를 맡게 되면 일이 번거롭고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손해가 지대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돈을 받아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항시 여러분의 편에서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이 하루속히 자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에 여념이 없으신 우리 총무부장님께서 이 일의 해결을 위해 고심하시던 중 묘안을 내셨습니다. 그 묘안이란 뭐냐. 다름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돈을 총무부장님 한 분 이름으로 결재를 맡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경리과에서는 여러분들의 개인 카드를 비치하고 매달 원금에 맞는 이자를 분배해 왔습니다. 예예,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여러분이 맡긴 일인당 원금을 평균 오만 원으로 잡고 백칠십 명이면 오 칠에 삼십에 오요, 오 일은 오니까 도합 팔백오십여만 원이 됐지요. 그 돈의 명목이 법적으로 총무부장님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이번 조치로 말미암아 오백만 원 이상이면 삼 년 거치 오 년 상환에 걸리게 되었어요. 그러니 법은 엄중하고 인정이 없는지라 법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삼 년을 기다리며 사채 법정 이자를 받고 사 년째 되는 해부터 원금을 찾게 됩니다. 나 개인적으로는 무척 가슴 아프게 생각하나 법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를 바라는 바이올씁니다.”

경리과장의 그런 유직한 연설을 듣고 나서도 여공들은 아무 동요가 없었다. ㉥처음 사채 동결의 소식을 들은 때와 마찬가지로 결국 작업 총반장 허씨의 보충 설명을 들은 다음에 와르르와르르 무너지는 가슴을 힘겹게 붙안아야 했다.

다음날부터 공장 안에서 우중충한 ㉦떡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어느 때 없이 염색 물감 냄새가 역하게 속을 뒤집었다. 여기저기서 심심찮게 흘러나오던 유행가 대신 긴 한숨이 꼬리를 물었다. 물속에 담긴 종아리가 못 견디게 아리고 발가락 사이가 미치게 가려워 오는 것이다.

며칠이 지나자 사람 환장하게 만드는 말이 퍼졌다. 그전에 사장이 내놓은 이자는 사 부 오 리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총무부장과 경리과장이 짜고 오 리씩 해 먹었다는 소식이었다. 이런 사실을 사장은 뒤늦게 알았지만 다행히 모든 돈이 총무부장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당장 돌려주지 않고 장기간 이익을 볼 수 있게 되자 두 사람을 용서했다는 것이다.

- 조정래, 「동백」 -

5.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비유적 표현을 통해, ㉠은 인물들의 내면을 드러내고 ㉡은 상황의 분위기를 암시하고 있다.
- ② ㉠과 ㉡은 반어적 기법을 활용해, ㉠은 인물들의 행위를 강조하고 ㉡은 인물들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③ ㉠과 ㉡은 현재형 어미를 활용해, ㉠은 인물들의 심리 변화를 암시하고 ㉡은 사건의 긴장감을 극대화하고 있다.
- ④ ㉠과 ㉡은 감각적 묘사를 통해, ㉠은 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은 사건 해결의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 ⑤ ㉠과 ㉡은 과장된 서술을 통해, ㉠은 인물들의 외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은 인물들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제시하고 있다.

6.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모은 돈이 떼어먹힌다는 생각에 분옥이가 느끼는 답답함을 엿볼 수 있다.
- ② ㉢: 미장원 마담이 되는 상상에 분옥이가 느끼는 설렘을 엿볼 수 있다.
- ③ ㉣: 회사에 넣어둔 돈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에 봉자가 느끼는 허무함을 엿볼 수 있다.
- ④ ㉣: 어머니와 두 동생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길순이가 느끼는 슬픔을 엿볼 수 있다.
- ⑤ ㉤: 경리과장의 말이 끝나자마자 확실하게 알게 된 자신들의 처지로 인해 여공들이 느끼는 절망감을 엿볼 수 있다

7. 유직한 연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리과에서는 여공들의 개인 카드를 마련하지 않았다.
- ② 여공들 각각이 회사에 맡긴 금액의 평균은 팔백만 원이었다.
- ③ 사채 동결로 인해 여공들은 이자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되었다.
- ④ 여공들이 회사에 맡긴 돈의 명의를 총무부장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 ⑤ 사채 동결 이전 여공들은 원금과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금액의 이자를 경리과에서 받았다.

8.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 작품은 1970년대에 도시로 이주한 노동자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열악한 노동 현실 속에서도 노동자들은 꿈의 실현, 고향에 대한 그리움, 고향 식구들에 대한 부양 등의 이유로 돈을 벌려고 노력하며 긍정적인 미래가 도래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정부 정책의 영향이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가운데 그들의 피해를 외면하는 세력에 의해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험겨워진다.

- ① 분옥이가 칠만 원을 모아 미용 학원에 다니려는 것에서 돈을 벌려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겠군.
- ② 봉자가 오만 원만 모으면 고향에 돌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것에서 도시로 이주한 봉자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짐작할 수 있겠군.
- ③ 사장이 총무부장과 경리과장의 횡령 사실을 알고도 그들을 용서했다는 것에서 노동자들의 피해를 외면하는 세력임을 짐작할 수 있겠군.
- ④ 여공들이 회사에 맡긴 원금을 사 년째 되는 해부터 찾게 될 수밖에 없게 된 것에서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의 삶을 짐작할 수 있겠군.
- ⑤ 길순이가 내년부터 지옥탕이 아니라 신선놀이를 하게 됐다는 것에서 열악한 노동 현실 속에서 길순이가 바랐던 긍정적인 미래의 도래를 짐작할 수 있겠군.

편집국 안에 들어섰을 때, 그가 두려워하고 있던 예측이 이젠 어쩔 수 없게 된 것을 최초로 그에게 느끼게 해준 것은 국내(局內)에서 심부름하는 계집애의 표정에서였다. 어느 때 그 계집애는 만화가를 만화 속의 인물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탓인지 그를 보기만 하면 웃음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며 횡 가버리곤 하는 것이었는데, 그날은 제법 나뭇이 ‘안녕하세요’를 하고 나서 미소를 띄운 채 그의 얼굴을 똑바로 올려다보는 것이었다.

그것이 극히 잠깐 동안이었지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던 그에게 모든 걸 알 수 있게 해주었다. 계집애가 자기를 올려다보던 맑은 눈 속을 살짝 스치고 가던 게 어찌면 연민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하자 분노보다도 오히려 전신에서 맥이 빠져나가는 것을 그는 느끼면서 굳어진 얼굴로 문화부를 향하여 갔다.

자기들의 데스크 앞에 앉아 있던 몇 명의 기자들이 어느 때와 달리 유별나게 반갑게 인사할 때는 그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자기도 덩달아서 지금 작별을 하듯이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잠시 동안 그는 자기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알 수 없었다. 흐르던 시간이 갑자기 끊어지면서 공백이 생기는구나 하는 생각이 알 수 없는 부끄러움과 함께 그를 엄습했다. 그리고 있는 그를 문화부장이 구해줬다.

㉠“오늘치 만화 좀……”

하면서 문화부장은 손을 내밀었던 것이었다. 그는 당황해졌다. 그가 짐작하고 있던 사태 속에서는 문화부장의 지금 얘기는 불필요한 게 아닌가. 그는 옆구리에 끼고 있던 서류봉투를 살그머니 좀더 힘을 주어 끼면서 땀이 송글송글 맺히고 빨개진 얼굴을 손바닥으로 닦으며 말했다.

㉡“그려오지 않았는데요.”

말하고 나서 그는 금방 후회했다. 어찌면 자기의 짐작이란 게 얼토당토않은 게 아닐까…… 자기의 신경과민으로 자기는 지금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나 문화부장의 다음 말은 그의 그러한 희망에 찬 기대를 산산이 부숴버렸다.

㉢“그럼 알고 계셨군요.”

문화부장은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그에게 말했다.

“차나 한잔 하러 가실까요?”

할 얘기가 있다는 암시를 그에게 주면서 문화부장은 그의 앞장을 서서 걸어가기 시작했다.

“아주 섭섭하게 됐습니다. 펍 오랫동안 함께 일해왔었는데……”

다방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자 문화부장은 그에게 말했다.

“저는 이형(李兄)을 두둔했습니다만…… 국장님도 이형의 만화에는 항상 칭찬을 하셨었는데…… 그…… 독자들이 자꾸 투서를……”

“아니 사실 재미가 없었지요. 제 자신이 잘 알고 있었습시다만.”

그는 문화부장이 우물쭈물하고 있는 게 미안해서 얼른 말을 받았다.

“아니지요. 독자들이 이형의 유머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것뿐이지요.”

【중략 줄거리】 신문사에서 해고당한 그는 다른 신문사의 문화부장을 찾아가 차 한잔 마시자고 권하며 만화 연재를 부탁한다. 그러나 문화부장은 신문사에 돈을 쓰지 않는 사장을 핑계로 부탁을 거절하고 찾값을 먼저 계산한다. 그는 만화가인 김선생을 만나 술을 마시며 자신에게 해고를 통보한 문화부장에 대해 이야기한다.

“㉣문화부장이 차나 한잔 하자고 하더군요.”

그는 속으로는, 자기가 만화 연재를 부탁하러 갔던 ㉤문화부장을 생각하면서 말하고 있었다.

“다방에 가서 그 양반이 그러더군요. 사람 웃기는 방법의 몇 가지 패턴을 안다고 곧 만화가가 되는 것이 아니다. 바로 그 양반이 그랬어요. 두꺼비 같은 눈알을 부라리면서 말입니다.”

찾값을 앞질러 내버리던 그 키가 작달막한 문화부장. 날 무척 무안하게 해줬었지.

[A] “그러면서 말입니다. 너는 미역국이다, 이거죠.”

자기네 사장이 얼른 뒤통달라는 기도를 하라던 그 사람. 난 참 면목이 없어서 혼났지.

“차나 한잔. 그것은 일종의 추파다. 아시겠습니까, 김선생님?” 그는 혀가 잘 돌아가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그 속에서 성실을 다했던 하나의 우연이 끝나고……”

그는 술을 한모금 꿀꺽 마셨다.

“새로운 우연이 다가온다는 징조다. 헤헤, 이건 낙관적이죠 김선생님?” 그는 김선생이 방금 비워낸 술잔에 취해서 떨리는 손으로 술을 따랐다. “차나 한잔. 그것은 이 회색빛 도시의 따뜻한 비극이다. 아시겠습니까? 김선생님, 해고시키면서 차라도 한잔 나누는 이 인정. 동양적인 특히 한국적인 미담…… 말입니다.”

㉥“그, 어린이 신문에 그리고 있는 거라도 열심히 하고 있게. 기다리면 또 뭐가 생길 테지.”

김선생이 술잔을 들면서 말했다.

“자, 드세.”

그는 자기의 술잔을 잡으려고 했다. 잘못해서 술잔이 넘어져 버렸다. 그는 손가락 끝에 얼질러진 술을 찍어서 술상 위에 ‘아톰X군’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다.

“㉦자, ‘아톰X군’, 차나 한잔 하실까? 군과도 이별이다. 참 어디서 헤어지게 됐더라.” 그는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는 다른 손으로 자기의 이마를 한번 찰싹 때렸다. 골치가 쭈셨기 때문이다. “오, 화성인들의 계략에 빠져서 군이 포로가 되어…… 바야흐로 생명이 위험해져 있는 데서 ‘다음 호에 계속’이었군…… 미안하다. ‘아톰X군’…… 사람들은 항상 그런 걸 요구하거든. 아슬아슬한 데서 ‘다음 호에 계속.’” 그는 다 그려진 ‘아톰X군’의 얼굴을 다시 손가락 끝에 술을 찍어서, 지우기 시작했다. “미안하다, ‘아톰X군’. 어떻게 군의 힘으로 적진을 뚫고 나오기 부탁한다. 이제 난…… 힘이 없단 말야. 나와 헤어지더라도…… 여보게, 우주의 광대하고.” 그러면서 그는 양쪽 팔을 넓게 벌렸다. “어두운 공간 속에서 영원한 소년으로 살아 있게.”

- 김승옥, 「차나 한잔」 -

9.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빈번하게 장면을 전환하여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② 과거의 장면을 삽입하여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제시하고 있다.
- ③ 인물의 말과 내적 독백을 교차하여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대화를 통해 상황에 대한 인물 간의 시각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 ⑤ 동시에 일어난 두 사건을 병치하여 인물 간의 갈등을 부각하고 있다.

10.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그’의 만화를 형식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 ② ㉡: 자신의 해고를 짐작하며 ‘문화부장’에게 말하고 있다.
- ③ ㉢: ‘그’가 만화를 그려 오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기다리면 새로운 일거리가 생길 것이라며 해고당한 ‘그’를 위로하고 있다.
- ⑤ ㉤: ‘아톰X군’을 더 이상 그리지 않으려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11.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모은 돈이 떼어먹힌다는 생각에 분옥이가 느끼는 답답함을 엿볼 수 있다.
- ② ㉡: 미장원 마담이 되는 상상에 분옥이가 느끼는 설렘을 엿볼 수 있다.
- ③ ㉢: 회사에 넣어둔 돈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에 봉자가 느끼는 허무함을 엿볼 수 있다.
- ④ ㉣: 어머니와 두 동생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길순이가 느끼는 슬픔을 엿볼 수 있다.
- ⑤ ㉤: 경리과장의 말이 끝나자마자 확실하게 알게 된 자신들의 처지로 인해 여공들이 느끼는 절망감을 엿볼 수 있다

1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 작품은 만화가가 겪는 하루의 사건을 통해 1960년대를 살아가는 소시민의 생계에 대한 불안과 비애를 드러낸다. 작품에서 만화가는 만화를 충실히 연재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해고를 당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려 하지만 실패한다. 작가는 이 과정에서 인물의 상황과 심리를 우회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비유적 표현, 모순 형용 등을 활용한다. 또한 자신이 그리는 만화 속 가상의 인물에게 말을 하는 상황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기도 한다.

- ① ‘그’가 ‘계집애’의 표정을 보며 ‘두려워하고 있던 예측이 이젠 어쩔 수 없게’ 되었다고 느끼는 모습을 통해 해고로 인해 생계를 걱정하는 ‘그’의 불안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그’가 자신의 해고를 ‘미역국’이라고 말하는 것은 해고당하는 상황을 비유적 표현을 통해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그’가 자신의 해고를 ‘새로운 우연이 다가온다는 징조’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을 해고한 신문사로부터 다시 만화 연재를 의뢰받게 되리라는 기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그’가 ‘차나 한잔’의 의미를 ‘이 회색빛 도시의 따뜻한 비극’이라고 말하는 것은 해고를 당한 ‘그’의 비참한 심리를 모순 형용을 통해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그’가 ‘아톰X군’의 얼굴을 술상 위에 그렸다 지우며 ‘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통해 ‘그’가 처한 상황에 대해 느끼는 무력감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앞부분의 줄거리】 ‘나’는 지인의 과수원에서 어린 딸과 시간을 보내며 ‘아재비’를 떠올린다. 남로당*의 고위 간부로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도망쳐 ‘나’의 집 과수원에서 일한 ‘아재비’는 ‘나’를 보살피 주며 작은호수를 만들어 주었었다. ‘아재비’와의 일을 떠올리다가 딸과 놀아주던 ‘나’는 품에 안은 딸이 잠들자 딸에게 속삭인다.

아이 머리의 묵직한 무게가 가슴에 와 닿았다. 긴장이 풀린 아이는 어느새 잠이 들어 있었던 것이다.

이애, 밝은 전쟁이다. 밝은 늘 전쟁이었다. 어느 해 어느 시대 어느 대륙에 전쟁이 멈춘 적이 있었더냐. 아무리 방으로 방으로 숨어들고 아무리 방패를 꺼내 들어도 사방의 문틈으로 전쟁의 냄새는 새어 들어오지. 그 냄새는 딱딱하고 질기고 직선으로 세상을 자르는 그런 **교악한 냄새**지. 아, 너를 위해 세상의 미운 단어들을 모두 바꿀 수 있다면..... 모든 **딱딱하고 근육질**이 **박힌** 단어에 **공기 같은 가벼움과 부드러움**을 주고 모든 악취 나는 단어에 지상의 들꽃 이름을 대신해 줄 수 있다면. 너도개미자리, 둥근바위솔, 찔레, 명아주, 두메투구풀, 미나리아재비, 땅비싸리, 무릇꽃, 청사조, 패랭이, 쑥부쟁이, 아 그리고 채송화, 채송화..... 이애, 너는 아무래도 시인이 되어야겠다. 미운 단어를 아름답게 만드는, 악취에 **향기**를 주는, 입을 벌리면 **음악**이 나오는..... 너는 아주 **고전적인 시인이어야겠다**. 발가락, 땅콩, 코딱지 같은 단어를 예쁘게 발음할 줄 아는 너. 처음 글을 배울 때 네 성인 ‘박’자를 **뻘뻘하**게 써놓고 글자가 웃고 있다고 말하던 너. 이 먼 과수원의 오수의 나른한 틈새에 까지 비집고 들어오는, 아 비릿한 그 냄새를 이애, **빨리** 지워다오. 아주 강력한, 아주 향긋한 방취 살포제인 너의 웃음. 이애, 그토록 짙은 미소를 지을 줄 아는 너는 아마도 **외계인인 모양이다**. 그래서 내가 자전거에만 오르면, 너의 그 **짧고** 가는 다리를 소금쟁이만큼 **빠르게** 놀려 앞으로 갈 때면 나는 그만 가슴이 무섭게 뛰기 시작하는 걸 느낀다. 너의 자전거에 **가속**이 붙고 **앞바퀴**가 들려지고, **공중으로** **공중** 저 높이로 **솟아오**르는 것이 보이는구나.

작은 호수가 있네. 호수 주변에 채송화를 심었네.
달력에 찍은 수많은 점들이 언젠가 별이 되려니.
살.사랑.사람.살림.서리.성에.잘 살으오.....

그가 남긴 낡은 ㉠공책에는 이해하기 어렵게 갈겨쓴, 일기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딱딱한 어투의 글들에 섞여 이처럼 정갈하게 정리해서 쓴 모호한 암호 문자들도 적지않이 들어차 있었다. 그 암호 문자 중의 몇 개는 낱장에 옮겨져, 몇 년에 한 번씩 딱지 편지로 접혔다. 변함없는 기름한 글씨. 변함없이 세 번 돌려 접은 딱지 편지. 글씨 그것은 꼭 암호 문자가 아닐 수도 있었다.

그와의 첫 여행에서부터 그가 죽기 전까지 십여 년에 걸쳐 모두 다섯 번을 나는 그런 이상한 편지 심부름을 했다. 수신인은 그의 처자였다.

(중략)

그가 간 후 한참이 지나, 이미 야산으로 변해 버린 과수원을 정리하기 위해 내려갔었다. 인력도 달리었거니와 무엇보다도 오래된 아버지의 투병으로 진 빚 감당으로 팔려 나간 과수원에 방책을 만들려 벌써 남자 서너 명이 와서 일하고 있었다. 나는 딸애의 출산을 얼마 남겨 놓고 있지 않은 때였다. 과수원의 길 이 곧게 뻗어 나가는 게 보이는 호숫가에 앉아서 나는 다시는 못 보게 될지도 모르는 낯익은 풍경들 하나하나에 나의 애정 어린 시선을 나누어 주었다. **과수원**은 황폐했어도 내게는 **평화**였다. 설령 그것이 어느 날 없어졌다 해도. 그 안에 서 일어난

일을 알고 있는 무언의 동반자인 나무들은, 내일에 다가올 걱정에는 무관심한 채 느연하게 푸른 하늘에 미세한 실핏줄을 그리고 있었다. 잎이 다 진 가을이었던 것이다.

그 비어 있는 길 위에 하나의 영상이 떠올랐다. 아재비의 어깨에 팔을 얹어 기대고 불편한 몸을 움직이며 짧은 산책을 하는 아버지와 그 옆에 그림자처럼 엉킨 아재비의 모습이었다. 그들은 늘 할 말이 많았다. **단둘이서**. 나는 그럴 때의 그들이 제일 아름다웠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무에 그리 할 말이 많았을까. 혈혈단신 가족을 모두 버리고 남쪽을 택해 내려온 아버지였던 만큼 건강이 좋았던 젊은 시절만 해도 읍으로 나가서 또는 내가 다니는 국민학교에 와서 가끔 반공 강연을 하곤 했었다.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여 주어 내 어깨를 으쓱하게 한 강연들이었다.

바로 그가 남로당의 열성 간부였던 아재비를 과수원에서 발견했고 그의 불안한 신원의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으며 그와 일생의 의형제가 된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가 내준 아재비의 공책에 보면 자연을 읊은 글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거기에는 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흘려 쓴 글씨이기도 하지만 그 일생 동안 붙잡고 있었던 생각들이 두서없이 채워져 있었다. 그가 겪어 온 사고의 모든 갈피들. 어떻건 그는 변하지 않은 채로 일생을 살았던 것 같고 그것을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그다지 숨겼던 것 같지도 않다. **상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그 이전 혹은 그것을 뛰어넘은 어떤 곳에 그들의 삶과함께 위치해 있었던 것이다.

과수원의 사방에 그들의 속삭임이 있었다. 그들이 근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차이가 끝도 없는 속삭임을 만들었던 것일까. 특히 늦은 밤의 집 앞에 내놓은 **평상 위**와 과수원의 **좁은 길**들, 야산 밑에 패인 **호수 주변**..... 사방에서 귀만 기울이면 **바람 소리 같은 그들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무엇보다도 호수 주변에. 그것이 수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황량하고 지난하던 과수원의 생활을 안온한 미소로서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 최윤, 「속삭임, 속삭임」 -

* 남로당 : 1946년 11월 서울에서 결성된 공산주의 정당인 남조선노동당의 줄임말.

1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간적 배경에 대한 묘사를 통해 인물의 태도가 변화하는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인물이 겪은 과거 사건의 비현실적인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서술자의 고백적 진술을 바탕으로 과거에 대한 기억과 그 기억에 부여한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 ④ 시간적 배경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인물의 행위와 사건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서술하고 있다.
- ⑤ 서술자가 서술의 초점이 되는 인물의 시선으로 주변 인물들의 행위에 담긴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14. 윗글을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재비는 거동하기가 어려웠던 아버지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었겠군.
- ② 아재비가 매사에 조심스럽게 행동하여 아버지가 그의 신원을 알아차릴 수 없었던 것이겠군.
- ③ 어린 시절 과수원의 호숫가에 앉아서 볼 수 있었던 풍경들을 ‘나’는 애정 어린 시선으로 보았겠군.
- ④ ‘나’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과수원을 보전하기 힘들었던 것은 인력 부족과 아버지의 오랜 투병 때문이었겠군.
- ⑤ 어린 시절 국민학교에서 아버지가 한 반공 강연을 들은 사람들의 태도를 보고 ‘나’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했겠군.

15.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속삭임, 속삭임」은 “나”가 딸에게 하는 속삭임과 ‘아버지와 아재비가 나눈 속삭임’을 통해 대립을 초월하는 화해와 공존에 대한 지향을 주제 의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전자의 속삭임은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환기하는 내용을 통해 주제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후자의 속삭임은 인물들이 교감을 나누는 조화로운 모습으로 제시되며 공간과 연계된 감각적 이미지로 형상화되어 주제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전자의 속삭임을 통해 형성된 대조적 의미 구조는 후자의 속삭임과 유기적 관련성을 맺으며 주제 의식의 형상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 ① 전쟁’의 이미지인 ‘딱딱하고 근육질이 박힌’과 대조되는 ‘공기 같은 가벼움과 부드러움’은 ‘과수원’에 담긴 ‘평화’의 의미와 어울려 주제 의식의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 ② ‘고약한 냄새’를 지울 수 있는 ‘향기’, ‘음악’ 등은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환기하며 아버지와 아재비의 속삭임에서 ‘나’가 느낀 아름다움과 조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 ③ ‘나’가 딸에게 ‘고전적인 시인이어야겠다’라고 한 말은 ‘상식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들’을 이해하려는 ‘나’의 소망이 투영된 것으로 속삭임들 간의 유기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어.
- ④ ‘단둘이서’ 속삭였던 아버지와 아재비의 모습은 교감을 나누는 조화로운 모습으로 대립을 초월한 화해와 공존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어.
- ⑤ ‘바람 소리 같은 그들의 속삭임’은 과수원의 ‘평상 위’, ‘좁은 길들’, ‘호수 주변’ 등의 공간과 연계되어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이미지로 형상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16.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딱지 편지에 인용된 문장이 본래 너무도 딱딱한 어투였음을 보여주는 말들이 적혀 있었다.
- ② 자연을 읊은 글들로만 가득 차 있어 ‘나’가 아재비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말들이 많이 적혀 있었다.
- ③ 아재비가 일생 동안 붙잡고 있던 생각들을 어린 ‘나’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는 말들이 적혀 있었다.
- ④ 아재비가 아버지와 의형제 관계를 맺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음을 ‘나’가 깨닫게 해 주는 말들이 적혀 있었다.
- ⑤ 아재비가 과수원에서 생활하는 동안에도 아재비의 신념에 변화가 없었음을 ‘나’가 짐작하게 해 주는 말들이 적혀 있었다.

【앞부분의 줄거리】 ‘나’는 우연히 남의 서류 봉투를 들고 온다. 그 안에는 대학생 이만집이 쓴 ‘내 젊은 날의 비망록’이란 제목의 일기장이 들어 있었고 ‘나’는 그 일기를 읽는다.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어려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단숨에 염색 공장을 찾아온 사연을 쏟아 놓기 시작했다.

“경집이 형이 차 사고를 냈어요. 피해자 쪽에서 5주 진단을 끊어 와서 올려대고 있어요. 타협 불라고 하는데 미적거리다가 구속으로 떨어질까 봐 걱정들 하고 있어요. 셋째 형이 판사로 있는 동창생을 만나 손을 써보겠다는데 어찌 불안해요. 아버지에게는 그냥 제가 알리러 왔어요. 너무 걱정은 마세요. 잘될 거예요.”

아버지는 내 말을 채 다 듣기도 전에 천천히 발길을 돌렸다. 쪽문을 들어서는 아버지의 발길이 도살장을 향하는 소처럼 뭉그적거렸고, 돌처럼 각이 진 당신의 등은 물에 올라와 못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죽음을 앞둔 거북의 딱딱한 등딱지를 닮아 있었다. 아버지는 큰아버지처럼 농사나 지어야 할 사람이다. 공연히 상업 학교까지 나와서 평생을 그르쳤다. 아버지의 경우에 학력이란 전연 무용지물이었다. 오히려 교육을 안 받았던 것만 못했다. 반풍수 집안 망친다는 속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육을 받아야 하고 많이 배울수록 좋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각자의 양심이 한 시대의 질주와 얼마나 발 빠르게 보조를 맞추느냐는 것은 우리의 날라리 학력에서 곧장 드러난다. 곧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그들의 양심을 찾기가 힘들어진 것만 봐도 그렇다. 살이 너무 썩어서 양심이 보이지 않는 것일지도. 살이란 결국 적당주의의 탈을 쓰고 병든, 그것도 중증인 이 사회에 부화뇌동하는 능력 그 자체일 테지만.

그러나 일의 선후책을 딱딱 부러지게 따지고 나서 횡하니 엉덩이를 털고 일어서던 셋째 형보다는 아버지의 난감한 뒷모습이 내게는 훨씬 인간적으로 돋보였다. 한참이나 외등 불빛을 받으며 서 있다가 나는 단호히 발걸음을 돌렸다. 밤색 바지와 머리통이 작은 박 씨는 어느 쥐구멍으로 사라졌는지 이미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와 나는 서로를 **측은하게** 생각하며 헤어진 셈이다.

이제 아버지는 **어떤 일에도 속수무책**이다. 그러나 나는 당신의 마음을 안다. 아들의 장래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내색도 자제하는 당신의 마음속에서 일고 있을 낭패감, 그리고 당신의 무능력에 대한 막심한 자괴감을. 외부에서 무작정 들이닥치는 어떤 물리적인 힘에도 속수무책으로, ㉡풍뎡이처럼 죽은 시늉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양반. **어떤 신고나 불행도, 심지어 굶주림까지도 말없이 수용**해 버리는 늙은이를 나는 오늘 새삼 목격, 확인한 셈이다. 아버지도 무능하지만 나는 얼마나 더 무력한가!

아버지에 대한 사무치는 애증으로 나는 오늘 참담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뜻밖에도 부정(父情)과 그것에의 적의는 백지장 한 장 차이라는 것, 아니 손바닥과 손등 관계라는 것을 확인한 하루였는데, ㉢ 그게 내게는 적잖은 수확이었다.

이만집의 어머니는 일찍 타계하신 것 같다. 그의 **비망록** 어느 구석에도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 없다. 어머니를 모르는 사람은 대체로 푸석한 빵 껍질같이 정서가 꽤나 삭막한 법인데 이만집은 제법 다혈질이랄까, 아직도 **눈물이 메마르지 않은 듯하다.**

이만집의 아버지는 상당히 흥미를 유발하는 인물임에 틀림없다. 남다른 결벽증으로 인해 어떤 부정 사건에 연루되어 혼자 죄를 덮어쓰고 공무원 직에서 파면당한 양반인 것 같다. 늘 **피해 의식**에 시달리나 속마음은 멀쩡하고, 내가 보기에는 이만집의 만형, 그 고서를 뒤적인다는 곰팡이 냄새 나는 인물과 동류

향으로 보인다. 그들은 분명히 한 시대의, 또 한 사회 환경의 어정쩡한 부산물일 텐데, 이상하게도 그들에게서는 가해자인 ‘시대’의 냄새를 맡을 수 없다. 한 시대에 너무 밀착되었다가, 또는 그것과 꾸준히 호흡을 같이했다가 어느 날 배신을 당하면 그것과 매정하게 등을 지고도 이력저력 살아 내지기는 하는 모양이다. 그들은 애써 이 ‘시대’와 무관하다는 표정만 짓는다. 아무튼 무능하기 짝이 없으나 법 없이도 살 피해자들이고, 위낙 무기력하기 때문에 **해를 끼칠 사람들은 아니다.** 어쩌면 **생래부터 착한 심성으로 고생을 낙 삼고 살 양반**으로 점지된 것 같다. 그러나 주위의 사회적 환경이, 곧 세파가 그들을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가장으로서의 자격 상실자로 만들어 버렸다. 그렇긴 해도 그들이 속물은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 가끔씩 만날 수 있으며, 이런 답답한 위인들이야말로 사회를 사회답게 굴러가도록 만드는 길라잡이이다.

(중략)

큰형 집을 모두 함께 나오려 했을 때 셋째 형수라는 게 제판에는 애교를 부리며 한다는 소리가 또 내 부아를 긁어 놓았다. 선물까지 받아 우쭐대고도 싶어 공연히 점잖게 있는 사람의 심사를 건드려 양양이를 부리려는 속셈이었을 터이다.

“도련님은 언제 취직할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어디다 쓸 거예요? 아직 연애를 못 해 봐서 돈 벌기도 싫나 봐요, 그렇죠?”

나는 하는 수 없이 말 같잖은 말에 응했다.

“연애하고 취직하면 돈이 중한 줄 알게 될 거라는 소리로 들리는데요. ㉤그런데 돌대가리인 제가 보기에는 돈이란 돈을 좋아하는 사람만이 그걸 쫓을 권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도무지 좋고 나쁜 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공부나 슬슬 더해 볼까 어쩔까 싶어요.”

알았다, 너희 내외나 돈 많이 좋아해서 호의호식하며, 너희들을 닮은 새대가리 후세나 잘 키우며 평생토록 짓까불어라.

내가 보기에는 이만집의 셋째 형처럼 영리한 형제가 집안에 하나쯤은 있어 가문을 덩실하게 살려 주면 좋겠는데 이 셋째 형이라는 위인은 처가 덕에 그리운 것이 없이, 자기 눈앞에 펼쳐진 세상을 야금야금 훑아 대는 이른바 출세 지향 주의자인 것 같다. 아무튼 흥미 있는 위인이고, 재미있는 세상살이인데 사람들마다의 사고를 획일화할 수 없듯이 사람들마다의 **재주와 처세술**도 이렇게 다양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불공평이라는 이 세상만사의 영구불변하는 ‘형평의 질서’가 없으면 누가 고시에 합격하려고 엉덩이에 못이 앉도록 책상 앞에 앉아 있겠는가.

- 김원우, 「 무기질 청년 」 -

1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만집은 아버지의 학력이 아버지의 삶에 기여했다고 생각했다.
- ② 아버지는 이만집에게 경집이 형의 장래에 대한 걱정을 토로했다.
- ③ 아버지는 부정 사건에 연루되었음에도 공무원 직을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다.
- ④ 이만집은 집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버지보다 자신이 더 유능하다고 여겼다.
- ⑤ 이만집은 경집이 형의 차 사고와 관련된 내용을 알리기 위해 아버지를 찾아갔다

18.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사람들의 속물적 태도에 대한 비판 의식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 ② ㉡ : 인물의 무력한 삶의 태도를 비유한 표현이다.
- ③ ㉢ : 상대방에 대한 인식 변화를 나타낸 표현이다.
- ④ ㉣ : 상대방의 태도 변화를 예상하며 현실적 대안을 제시한 발화이다.
- ⑤ ㉤ : 상대방에 대한 냉소적 심리에서 비롯된 발화이다.

19. 윗글을 바탕으로 **비망록**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 간의 심화되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 ② 특정 인물의 기록을 통해 사회 현실의 문제점을 살펴보게 하고 있다.
- ③ 계절의 변화에 따라 사건이 다층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 ④ 동시적 사건들을 병치하여 특정 사건에 대한 상반된 관점을 파악하게 하고 있다.
- ⑤ 여러 감각을 사용한 배경 묘사를 통해 특정 인물에게 도래할 비극적 사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20. .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무기질 청년」은 일종의 액자 소설로 ‘내부 이야기’와 ‘외부 이야기’가 번갈아 가며 서술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내부 이야기는 외부 이야기의 ‘나’가 제시한 이만집의 일기로, 외부 이야기는 주로 내부 이야기의 인물들과 사건에 대해 외부 이야기의 ‘나’가 제시한 소감과 비평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중층 구조에서 서로 다른 ㉠내부 이야기의 ‘나’와 ㉡외부 이야기의 ‘나’는 유사한 시각을 드러내기도 하고 상이한 시각을 드러내기도 한다. 아울러 외부 이야기의 서술자인 ‘나’가 내부 이야기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하고 해석한 내용을 덧붙여 작품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다.

- ① ㉠가 ‘아버지’를 이해하고 ‘측은하게 생각’한 것과 관련하여, ㉡는 ㉠에 대해 ‘눈물이 매마르지 않은 듯하다’고 판단하고 있군.
- ② ㉠가 ‘셋째 형’을 ‘돈 많이 좋아’한다고 한 것과 관련하여, ㉡는 ‘셋째 형’에 대해 그 자신의 ‘재주와 처세술’로 산다고 판단하고 있군.
- ③ ㉠가 ‘아버지’를 ‘어떤 일에도 속수무책’인 사람으로 평가한 것과 관련하여, ㉡는 ‘아버지’에 대해 ‘해를 끼칠 사람들’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군.
- ④ ㉠가 자신의 일기 ‘어느 구석에도 어머니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는 ㉠에 대해 ‘늘 피해 의식에 시달’린다고 판단하고 있군.
- ⑤ ㉠가 ‘아버지’를 ‘어떤 신고나 불행도, 심지어 굶주림까지도 말없이 수용’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하여, ㉡는 ‘아버지’에 대해 ‘생래부터 착한 심성으로 고생을 낙 삼고 살 양반’이라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군.

일 층, 이 층, 삼 층, 사 층, 모든 병동은 밤에도 환히 눈을 뜨고 있었다. 간호원들은 병실과 병실 사이를 부산스레 헤매고 있었고, 간혹 의사들은 ‘비상’을 알리는 주변 하사

[A] 같은 기민한 동작으로 층계를 오르내리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균을 잡아먹는 백혈구와 같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들의 무표정하고 뻣뻣한 얼굴에서, 균을 거부하는 강력한 항생제의 효능을 느껴야 했다.

그즈음, 나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입원한 이후 저들의 얼굴에서 웃음을 발견치 못했다는 중대한 사실이었다. 그런 생각은 참으로 불쑥 일어난 느낌이었다.

언젠가 나는 외국 잡지에서 잘 인쇄된 화장품 광고를 본 일이 있었다. 그 광고는 남자들이 면도 후에 바르는 미안수를 선전하고 있었는데, 나는 지금도 그리스 조각처럼 잘생긴 그 남자가 유난히 파르스레 빛나는 턱 위에 지극히 자연스럽고도 세련된 웃음을 띠고 있는 모습을 기억해 낼 수 있다. 그것은 일종의 심리적인 광고여서, 그 잘 깎은 턱과 웃음을 쳐다보고 있노라면 누구라도 그 미안수를 사지 않고는 못 배길 그런 것이었다. 그런데 만일 그 사내가 그 최면술 거는 듯한 매혹적인 웃음을 제거하고 무표정하게 서 있었다면, 나는 그 화보가 미안수 선전 광고라고는 생각지 않았을 것이다.

그 병원 의사들은 미안수 선전 광고에 나올 만한 사내들이 미소를 결여하였음으로 하여, 자기 병원 왕래를 권장하는 무표정한 히포크라테스의 모델로 아깝게 전략해 버린 듯 보였다. 그들은 일 초의 주저함도 없이 내장을 자르고, 뼈를 끊을 수 있는 권위를 보여 주는 모델로서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았다. 저들은 만약 외무 사원처럼 웃으며 환자의 증세를 물어본다면, 그 환자는 얼마나 심리적인 위안을 받을 것인가.

이리하여 나는 그들을 웃기기 위해서 고용된 사설 코미디언 같은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갖게 되었고, 밤낮으로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알아내려 애를 썼다. 나는 스스로의 청진기를 들고 그들을 진단하기 시작했고, 웃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인(素因)이 그들의 어느 부분에서 강하게 생겨나는가 하는, 임상 실험의 과정에 굉장한 열의를 기울이게 되었다.

(중략)

나는 퇴원하기 하루 전, 휴게실에서 어두워져 가는 병동을 바라보며 그런 생각을 했고 형광등이 환히 빛나는 병동이 흡사 여러 갈래로 유리된 미로와 같다고 생각했다. 그때 내게 떠오른 것은 강의 시간에 미로에 빠진 채, 강렬한 먹이의 유혹을 몸부림치며 반추하던 실험용 쥐의 모습이었다. 교수는 엄숙하게 ‘이 쥐는 미로에 빠져 버린 것이다.’라고 말을 했지만, 내겐 그렇게 생각되지 않았다. 새로운 방황이 그 쥐에게 열린 것이다. 반복, 반복으로 터득한 ㉠안이한 먹이로의 길보다는 충분한 포식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미로가 쥐 앞에 전개된 것이다. 나는 그 쥐에 대해 열렬한 성원을 보냈다.

나는 이 철근 콘크리트로 격리한 견고한 미로 속에 쥐 대신 그 젊은 인턴을 삽입해 보자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날 밤, 나는 병동이 잠들기를 기다려 간호원의 눈을 피해 1 병동에 있는 문패와 2 병동에 있는 문패를 모조리 바꿔 버렸다. 나는 그 거창한 작업에 거의 온밤을 새워야 했을 정도였다. 가을밤, 환자 복만을 입고 층계를 수십 번 오르내린 피로와 추위 끝에 나는 둔한 통증을 느끼며, 그러나 유쾌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내 병실 앞에 걸려 있는 이름은 해산일을 앞둔 여인의 문패였으니까 나는 그날 밤만은 늑막염 환자가 아니라 만삭의 여인이 된 셈인 것이다. 자, 이 병동의 의사와 간호원들은 어떤 방황을 시작할 것인가. 나는 나의 인턴이 ㉡새로운 방황의 길로 떠나주기를 기원했다. 뛰어라, 미로에 빠진 나의 투사여.

다음 날 나는 늦잠을 잤다. 나는 잠을 자면서도 병동 전체가 달라질 것임을 의심치 않았다.

오전 여덟 시경. 나는 칫솔을 들고 병실 복도를 어슬렁거리며 무언가 달라진 낚새가 있는가를 관찰하였다. 하지만 섭섭하게도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언제나 그러하듯 간호원들은 켜 걸음으로 복도를 뛰어다니고 있었고, 의사들은 알루미늄 식기 같은 얼굴을 반짝거리며 이 층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었다.

아침을 치우는 작업부들은 엘리베이터로 식기를 부산스럽게 운반하고 있었고, 병동은 그대로 어항처럼 투명한 건물 속에서 끓고 있었다. 나는 어젯밤 내가 기를 쓰며 가까스로 바꾸어 놓았던 병실 문패가 제각기 제자리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어느 틈엔가 고등 동물인 그들은 제 스스로 미로를 제거할 줄 알게 사육된 것이다. 나의 마지막 시도는 그들 앞에서 완전히 좌절되고 만 것이었다.

오전 아홉 시. 의사들은 동물원에서 갓 수입한 열대 동물처럼 떼를 지어 회진을 시작했다. 간밤에 수면을 잘 취했는지 그들은 더욱 정결해 보였다.

“오늘 퇴원이시죠?”

우두머리 의사가 가운데 손을 찌르며 여전히 사탕이라도 꺼내 줄 듯한 몸짓으로 물었다.

“그렇습니다.”

나는 정확하게 대답했다.

“몸은 어떻습니까?”

“정상입니다.”

“퇴원하실 때 간호원에게 약을 받아 가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윽고 젊은 인턴이 나를 쳐다보았다.

“어젯밤 뭐 잃으신 물건은 없지요?”

“글쎄요. 없는 것 같은데요. 뭐 도둑이라도 들었나요?”

“아, 예. 다행이군요. 어젯밤에 굉장히 장난꾸러기 소질을 지닌 도둑놈이 들었습니다.”

“헛하하.”

나는 유쾌하게 웃었다.

“병원에 피해라도 있습니까?”

“글쎄요. 아직까진 발견 못 하고 있습니다만 오전 중으로는 판명이 되겠지요. 저, 그럼 항상 건강하시길 빕니다.”

그들이 제각기 무어라고 주의말을 주면서 사라져 버리자, 젊은 의사는 내게 악수를 청했다. 나는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 최인호, 「견습 환자」 -

21.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인물의 행동 묘사를 통해 장면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② [B]는 현재형 진술을 활용하여 상황에 대한 다양한 인물의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③ [A]는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B]는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제시하고 있다.
- ④ [A]는 공간의 이동을 통해, [B]는 시간의 역전을 통해 인물의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A]는 전해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B]는 직접 경험한 일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제시하고 있다.

22.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언젠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웃음을 화장품 광고에서 목격한 적이 있다.
- ② ‘나’는 ‘그날 밤’에 몸이 지치도록 밤새 병동을 오가며 자신만의 작업에 몰두하였다.
- ③ 간호원들은 ‘다음 날’에 평소와 마찬가지로 분주하게 병원 내부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 ④ 우두머리 의사는 ‘오전 아홉 시’경에 ‘나’의 상태를 확인하며 퇴원을 제안하였다.
- ⑤ 젊은 인턴은 병원에서 발생한 ‘어젯밤’의 사건과 관련하여 ‘나’의 피해 여부에 대해 물어 보았다.

23. ‘나’의 관점을 중심으로 ㉠, ㉡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쥐가 반복적으로 ㉠에서 방황하는 것은 충분한 포식을 즐기는 중요한 방법이다.
- ② 젊은 인턴 스스로 투사가 되기를 다짐한 것은 ㉡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 ③ 젊은 인턴이 미로에 빠졌다는 것은 ㉡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 ④ 쥐에게 ㉠은 선호하는 목표가 부재한 미로이지만, 젊은 인턴에게 ㉡은 선호하는 목표가 뚜렷한 미로이다.
- ⑤ 쥐는 익숙한 먹이를 위해 아직 학습되지 않은 ㉠을, 젊은 인턴은 낯선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 장차 도달해야 할 ㉡을 선택했다.

24.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 작품에서 ‘병원’은 엄격하게 통제되는 공동체를 상징하며, 이러한 공동체의 시스템에 길들여진 인물들은 기계적 일상에 매몰되어 감정이 제거된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 작품은 치료의 대상이 치료의 주체가 되는 인물 간의 역할 전도의 방식을 통해 시스템을 교란하려는 시도와 실패의 과정을 보여 주며 통제된 공동체에 길들여진 인간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 ① ‘나’가 ‘문패를 모조리 바꿔’서 ‘병동 전체가 달라’지게 하려 한 것에서 공동체의 시스템을 교란하고자 하였음을 엿볼 수 있군.
- ② ‘나’가 ‘미소를 결여’한 의사들이 ‘무표정한’ ‘모델’로 ‘아깝게 전락’했다고 인식하는 것에서 감정이 제거된 인간에 대한 연민을 엿볼 수 있군.
- ③ ‘나’가 ‘유쾌한 마음’으로 잠들며 자신이 ‘해산일을 앞둔’ ‘만삭의 여인이 된 셈’이라고 여기는 것에서 인물의 역할이 치료의 대상으로 전도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군.
- ④ ‘나’가 떠올린 ‘일 초의 주저함도 없이’ 수술할 수 있는 ‘권위를 보여 주는’ 것에 ‘만족’하는 듯한 의사들에게서 기계적인 일상에 매몰되어 버린 인간의 모습을 엿볼 수 있군.
- ⑤ ‘나’가 ‘사육된’ ‘고등 동물’에 의해 ‘문패’가 ‘제자리에 놓’이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통제된 공동체에 길들여진 인간에 의해 자신의 시도가 실패했다고 여기고 있음을 엿볼 수 있군.

호랑이 사건 이후부터 윤봉이에겐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연설 흥내만이 아니라 군가를 부르는 데도 그 특이한 재주를 발휘하여 잠깐 사이에 우리 마을의 명물로 등장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마을 어디를 가나 윤봉이의 인기가 대단한 것에 가족들인 우리까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아주 내놓은 바보로 이제까지 거들떠도 안 보던 사람들이 우리 윤봉이를 구경하기 위해 일부러 마을 정자마당에 들르는 것이었고 길을 가다가도 꼭꼭 불러 세우곤 했다. 그러나 솔직히 얘기해서 이처럼 엄청난 인기로 값할 만큼 윤봉이의 재간이 하루아침에 눈부시게 급성장해 버린 건 아니었다. 발음은 여전히 어눌했고, 중간중간을 잘 까먹어 수없이 더듬거렸다. 더구나 노래 도중에 헛뜨게 흘리는 멀건 웃음과 굵뚱 몸놀림은 그가 여전히 **어찌지 못할 바보의 상태**로 머물러 있음을 증명하고도 남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극성이 윤봉이의 꿈무늬에 줄줄 매달려 다닌다는 건 대뜸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었다. 결국 그 점에 관해선 아버지의 견해가 옳은지도 몰랐다. 윤봉이가 근심될 때마다 아버지는 꿈을 이야기했다. 본디 우매한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꿈에 거는 기대는 늘 최저의 수준에서 시작되었다. 훈련에 의해 그 최저의 수준을 한치라도 넘어서는 행동을 보일 때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한 재주로 여기고 곡마단의 꿈에게 박수를 보내게 된다. 윤봉이는 한 마리의 꿈이었다. 꿈이 되어가는 윤봉이를 슬퍼하는 사람은 아버지 혼자였다. 아버지는 슬픔을 넘어 분개하고 있었다. 동네 사람들의 극성 뒤에 감추어진 불순한 저의를 개탄하고 있었다. 철부지 어린애를 **방패막이**로 삼아 자기네들이 인민군을 환영하고 공산당에 적극 동조한다는 사실을 은근히 드러내는 데 이용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가진 남 모를 괴로움은 어머니에 의해 번번이 무시당하곤 했다. 마침 잘된 일이지 뭐유, 하면서 오히려 어머니는 윤봉이를 대견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었다. 아버지의 고민을 알 리 없는 윤봉이는 사람들이 보내는 박수를 먹으며 마냥 신명이 났다. 인민학교가 끝나면 나는 항상 윤봉이 손을 잡고 마을 정자마당로 향했다. 나 어린 인민군 병사의 지휘에 맞추어 우리는 여름 한철을 매미처럼 내내 노래만 부르며 보냈다. 그리고 그 소년병이 숙련된 조련사처럼 우리 윤봉이를 맹훈련시키는 걸 곁에서 성의껏 도우면서 나는 보람을 느꼈다.

(중략)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음을 그애한테 이해시키기란 참말이지 장대로 보름달을 따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이었다. 녀석은 저를 그토록 귀애해 주던 나 어린 인민군 병사가 왜 갑자기 떠나버렸는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제 노래에 박수와 칭찬을 아끼지 않던 마을 사람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하루아침에 마음을 바꾸어 바보 윤봉이로 통하던 당시처럼 다시 거들떠도 안 보게 되었는지 그 까닭을 전연 몰랐다. 하기야 녀석 입장에서 본다면 구태여 그걸 알고 이해할 필요가 없는 노릇이었다. 녀석의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축음기판이 돌아가고 있었다. 음이 내킬 때마다 그걸 틀기만 하면 되었다. 그걸 틀고만 있으면 빛나던 시절 화려한 기억이 저한테서 떠나지 않고 머무는 줄로 알았다. 딱한 일이긴 해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고쳐지는 병이려니 생각하고 크게 신경들을 안 썼다. 다만, 인제는 내놓을 만한 게 못 되는 그 버릇이 아무데서나 불쑥 튀어나올까 봐 되도록 집 안에서만 놀도록 배려를 했다. 그러나 어렵도 없는 일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예상이 자꾸만 빗나감을 느끼고 당황하기 시작했다. 달래도 보고 혼뜨점도 내보았지만 다아 소용없는 짓이었다. 녀석은 누구로부터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동할 때마다 때와 곳을 가리지 않고 인민군가를 기운차게

부르는 것이었다. 그걸 들을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것은 피를 부르는 소리였다. 뺨 한 대 얻어맞은 과거를 찢르면 등쪽까지 꿰뚫리는 죽창으로 양갈음하는 세상이었다. 비단 인공 치하에서 거의 씨를 말리다시피 된 곰배정씨네뿐만이 아니라 여차하면 당장에라도 쫓아올 성심은 사람이 마을 안에 여럿 있었다. 그들 앞에서 눈곱만치라도 공산당에 관계된 흔적을 내 보이지 않으려고 마을 사람 누구나 혀를 호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듯 하는 판국이였다. 집에 자주 놀러 오던 어머니 연배의 마을 아낙네들도 한두 번 윤봉이의 연설 흥내와 군가를 들은 뒤로는 녀석과 마주치는 걸 꺼리는 눈치가 완연해졌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하면서 그네들은 어머니한테 넌지시 충고까지 하는 것이었다. 결코 무리가 아니었다. 누가 듣겠다 싶으면 어머니는 윤봉이 입을 손바닥으로 틀어막곤 했다. 하지만 아무리 수단을 다 해 봐도 녀석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말리면 말릴수록 더욱더 기를 써가며 이미 물거품이 돼 버린 지난날의 명성을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다하는 것이었다. 난생처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던 날의 **찬란한 기억**을 몰아내고 대신 다른 것으로 채워 줄 적당한 선물이 우리에게 없었다. 끼니때가 되면 밥을 달라는 뜻으로 목청껏 군가를 부름으로써 어머니가 저를 주목해 주기 바랄 정도였다. 결국 어머니 입에서, 이 웬수녀르 것아, 라는 말이 빈번히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동네 안에 차츰 소문이 번져 전번과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윤봉이는 재차 유명해졌다. **위태위태한 명물**이 된 아들에게 아버지는 놀랍게도 아주 관대했다. 철부지 어린애 장난인데 그걸 가지고 시비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면서, 사실 아버지 주장대로 아직은 윤봉이를 탈 잡아 자전거 체인이 나 죽창을 꼬나쥔 채 우리집에 나타난 사람이 아무도 없긴 했다. 그러나 아직 안 나타났다는 것과 언제 나타날지 모른다는 것과는 엄연히 뜻이 통하는 말이었다. 어느 때부터인가 불행이 아버지 신상에 슬금슬금 어떤 위해를 가하는 방식으로 우리집 대문을 넘보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불행을 불러들인 흉물**로 우리는 마침내 윤봉이를 지목하기에 이르렀다.

- 윤홍길, 「양」 -

25.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외부 이야기 속에 내부 이야기를 삽입하여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작중 인물이 관찰자 입장에서 인물들의 말과 행동을 전달하고 있다.
- ③ 인물의 행적을 요약적으로 진술하여 사건의 전개를 지연시키고 있다.
- ④ 동시에 일어나는 두 개의 사건을 병렬하여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⑤ 인물의 다양한 체험을 삽화 형식으로 나열하여 인물을 입체적으로 그리고 있다.

26.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머니는 윤봉이에 대한 마을 아낙네들의 충고를 무시했다.
- ② 윤봉이는 인민군 병사가 갑자기 떠난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 ③ 가족들은 호랑이 사건 이후 윤봉이의 인기가 대단해질 것임을 예상했다.
- ④ 인민군이 떠난 후 곰배정씨네는 마을 사람들에게 보복당할 것이라고 짐작했다.
- ⑤ 윤봉이는 가족들이 자신을 집에서 놀게 한 이유가 자신의 노래 때문이라고 여겼다.

27. <보기>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생님 : 소설에서는 인물의 심리나 정서, 처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하지만, 우회적으로 표현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도 합니다. [한 마리의 꿈]에 드러난 인물의 심리를 파악해 봅시다.

학생 : ㉠

- ① 윤봉이를 훈련시키는 소년병에 대한 아버지의 안타까움이 드러납니다.
- ② 윤봉이만 대견스럽게 여기는 어머니에 대한 ‘나’의 서운함이 드러납니다.
- ③ 윤봉이의 노래가 최저 수준에 머문 것에 대한 ‘나’의 아쉬움이 드러납니다.
- ④ 윤봉이에게 극성스럽게 구는 마을 사람들에게 대한 ‘나’의 원망이 드러납니다.
- ⑤ 윤봉이를 대하는 마을 사람들의 속내를 알아차린 아버지의 슬픔이 드러납니다.

28.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희생양은 사람이나 동물이 사회의 구성원들에 의해 제물이 된 것을 말한다. 사람들은 위기에서 벗어나거나 이익을 얻기 위해 소속력이 약한 계층에서 희생양을 찾아 이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공동체 내부의 긴장감과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 희생양에게 위기의 책임을 지우며 자신들의 결속을 다진다.

- ① 마을 사람들이 윤봉이를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윤봉이가 ‘어찌지 못할 바보의 상태’였기 때문이겠군.
- ② 마을 사람들이 윤봉이를 ‘방패막이’로 삼은 것은 인민군에 동조한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 윤봉이를 이용한 것이겠군.
- ③ 마을 람들이 윤봉이를 ‘위태위태한 명물’로 여겨 피한 것은 윤봉이의 재주가 불러올 위기에 불안감을 느꼈기 때문이겠군.
- ④ 가족들이 윤봉이에게 ‘찬란한 기억’을 대신할 것을 채워 주지 못한 것은 가족들이 인민군 치하에서 이익을 얻는 계기로 작용했겠군.
- ⑤ 가족들이 윤봉이를 ‘불행을 불러들인 흉물’로 지목한 것은 아버지의 신상에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한 책임이 윤봉이에게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겠군

[앞부분의 줄거리] 폐병을 앓고 있는 현일은 길에서 함께 있는 옛 동료 교사 도영과 제자 병수를 만난다. 병수는 폐병을 앓고 있는 도영이 약으로 쓸 구렁이와 지렁이를 잡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다. 도영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현일은 병수와 대화를 나눈다.

“하루바빠 하면 뭘 합니까? 학생 생활도 세월 보내는 한 수 단일는지도 모르니까 요행 있는 학비니 할 수만 있으면 오래 학창 생활을 해 보렵니다.”

“음.....”

“학생 생활에만 애착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 나서기가 무서워서 그러죠.”

“그것이 요새 젊은이들의 생각인가? 혹시 자네만이 그런가?”
“글썸을시다.”

“그런 것이 소위 불안이라는 유행병인가?”

어느덧 이야기가 또 이렇게 되풀이되는 것이 현일은 불쾌하였다. 병수를 만나면 젊은이의 청신한 기분을 맛보려니 기대하였던 자기가, 자기 말조차 이렇게 빼여지는* 것이 우울하였다.

“물론 시대적 원인도 크겠지만 자네같이 젊고 무엇을 하려면 할 수 있는 처지의 사람은 ㉠‘나만은 그런 유행병에 감염이 안 된다’는 의지와 패기를 가져 볼 수는 없을까?”

이러한 현일의 말에

“제가 불안 병자로 자처하는 배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선생 말씀같이 쉽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선생께서 말씀하시는 의지나 패기는, 오히려 선생의 신병과 정신적 타격의 반동이 아닐까요?”

하였다.

이렇게 속에 있는 대로 털어놓고 보니 병수는 도리어 쓸쓸하였다. 말이 지나쳤다고 후회되었다. M학교 시대에 또 각혈을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현일 선생이 그러한 때마다 ‘개체인 자신이 불행하더라도 그 때문에 결코 인생을 어렵게 보거나 저주할 것은 아니라’고 열성적으로 강조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감격하였고 현일 선생을 더욱 숭배하였던 것을 생각하였다.

그러한 회생과 추억과 지금의 자기 태도를 생각할 때 병수는 더욱 쓸쓸하였다. 이런 것이 문학청년다운 자기의 예민한 관찰을 자랑하려는 경박한 것이 아닐까고도 생각되었다.

㉢현일은 현일이대로 병수의 말에 아픈 타격을 느낄밖에 없었다. 절망적으로 자기 생명의 위험을 느낄 때마다 지금까지의 노력 정진 전진 노력으로 싸우며 살아온 자기의 일생이 이뿐이냐 하는 생각에 한 사회인으로 무엇을 해 보겠다는 희망도 야심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세상이 어둡고 인생을 저주하고 싶은 것이었다. 그것은 감정이었다. 그러나 그때만은 그것이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전부였다. 소크라테스가 아닌 범인의 본능이었다.

그러한 자기의 감정과 본능을 이론적으로 극복하려는 심정으로 수신 시간의 강의는 더욱 열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현일은 병수의 온건치 않은 말이 불쾌하면서도 전연 억측만도 아닌 바에야. 그러나,

“그러나 자네 말대로 내가 절망적이에요, 그 반동으로 의지와 패기를 말하는지는 모르지만 사람에게는 의지와 패기가 필요할까? ㉣물론 나는 건강으로나 교육자로나 절망적이지만, 자네 같은 사람들이야 왜.”

“결국 용기 문제겠지요.”

이렇게 대답하는 병수는 용기 없다기보다는 용기를 일으킬 만한 사상과 신념을 붙들지 못하였다는 것이 솔직한 말이 아닐까고 생각하였다.

(중략)

병수가 무엇이랴 대답할 사이도 없이 도영의 입에서 피가 솟구쳐 나오기 시작하였다.

피가 좀 몇자 기신을 못 차리는 그의 입언저리의 피를 씻으려고 병수는 손수건을 들고 다가앉았다. 그것을 본 현일은 병수를 떠밀어 내며 노기를 띤 언성으로 “저리 가라니까” 소리를 지르고 자기 손수건을 내어 도영의 머리를 가슴에 안고 얼굴을 씻으며

“이런 더러운 피에 왜 손을 적시려나..... 정신 차리거든 내가 다리구 갈게 자넨 가게나.”

병수는 할 수 없이 돌아서 성문으로 들어갔다. 처음같이 피가 솟구쳐 나지는 않지만 그치지 않고 입언저리로 가늘게 흘러내렸다. 도영의 머리를 자기 가슴에 기대어 놓은 현일이는 피가 멎을까 하여 자기 수건과 도영의 수건을 모두 적시어 보았으나 끝이 없었다. 할 수 없이 돌 위에 옷저고리를 접어 놓은 베개에 도영이를 누이고 정신 차리기를 기다릴밖에 없었다. 성벽 저편으로 해가 기울어서 진한 그림자가 덮이고 바람이 불었다.

아무리 저녁인들 이 여름에 바람이 싫으니..... 나 역시 이 세상과는 벌써 인연이 떨어진 사람이로구나.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며 현일은 앞가슴에 옷자락을 여미고 송장 같은 도영의 옆에 었다.

절망과 패기. 비관과 낙관. 그 두 가지 정반대의 생각을 번갈아 가며 지금까지 살아왔거니.

절망과 비관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었다. 뼈를 깎는 듯한 절망에 부대끼다 못하여 애써 빈약하지만 자기의 철학의 지식을 끄집어내어 구원한 인생의 발전을 명상해 볼 때에는 청정한 공기를 호흡하듯이 상쾌함을 느끼는 때도 있었다. 그때마다 자기도 한 짐을 맡았으면 하는 패기도 느껴보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인생을 등지고 죽어 가는 자신을 생각할 때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듯한 절망을 느낄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것이 오직 자기의 세계라면 참고 사는 때까지 살아가리라 하였다. 그러나 또 견딜 수가 없었고 아직 남은 마음의 탄력으로 또 상쾌한 명상으로 떠올라 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내게는 무엇이 남았으랴. 절망인들 남았으랴. 죽어 가는 폐어에게 물도 공기도 무슨 소용이랴. 지금 폐어는 반신(半身) 물에 잠기고 반신 바람에 불리면서도 두 가지 호흡의 기능을 다 잃고 죽어 가는 것이라고 현일은 꿈속같이 생각하며 죽은 듯이 었다.

얼마 후에 성문 저편에 자동차가 멎고 병수가 돌아왔다.

운전수의 손을 빌려서 도영이를 차에 싣고 떠났다. 죽은 듯한 도영이를 무릎 위에 누이고 현일은 차 한편 모퉁이에 기대었다. 눈도 뜰 수 없이 피곤하였다.

㉤운전대에 앉아서 돌아보는 병수는 ‘이런 더러운 피에 왜 손을 적시려나’ 한 선생의 말을 생각하였다.

- 최명익, 「 폐어인 」 -

* 빼여지는

29. 밑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병수는 자신의 속에 있는 말을 현일에게 하고 후회했다.
- ② 병수는 병이 발작해 쓰러진 도영을 위해 자동차를 타고 돌아왔다.
- ③ 현일은 병수와의 만남이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달라 우울함을 느꼈다.
- ④ 병수는 실생활에 나서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학창 생활을 오래 하겠다고 말했다.
- ⑤ 현일은 자신의 말에 대한 병수의 비판을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여겨 불쾌함을 느꼈다.

30. [A]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외양을 감각적으로 묘사하여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
- ② 인물의 내적 독백을 제시하면서 인물의 내면 의식을 진술하고 있다.
- ③ 공간적 배경을 사실적으로 제시하여 사건 전개와 필연성을 확보하고 있다.
- ④ 관찰자의 시점에서 인물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인물의 행적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하나의 사건을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하고 있다.

31. <보기>에서 선생님이 제시한 활동을 통해 **페어**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선생님 : 페어는 물속에서도 물에서도 호흡하는 물고기입니다. 페어와 관련하여 형성될 수 있는 물속과 물, 물과 공기의 대조적 의미 관계는 이 작품에서 ‘현일’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페어에 대해 이해해 봅시다.

- ① 페어가 ‘두 가지 호흡의 기능’을 모두 잃고 죽어 가는 것은 현일이 패기를 잃은 데다가 절망조차 남아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 ② 페어가 ‘반신 물에 잠기고 반신 바람에 불리’는 것은 현일이 낙관적 생각을 하지 못하고 비관적 생각만 하며 살아온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 ③ 페어가 물위로 떠올라 ‘청정한 공기’를 호흡하는 것은 현일이 인생을 등지고 더 깊은 절망감에 빠져드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 ④ 페어가 ‘마음의 탄력’으로 떠오르는 것은 현일이 현실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고 심적 안정 상태에 이르렀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 ⑤ 페어가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현일이 ‘철학의 지식’을 끄집어내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32. <보기>를 바탕으로 ㉠ ~ ㉣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 작품은 암울했던 일제 말기에 기성세대와 청년 세대가 서로에 대해 지녔던 의식과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이 작품 속 기성세대는 청년 세대에게 실망감과 안타까움을 느끼는 한편, 그들에 대한 책임 의식과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청년 세대는 기성세대를 냉소적으로 대하기도 하지만 외면하지 않고 기성세대의 생각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① ㉠에서는 현일이 현실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병수의 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군.
- ② ㉡에서는 병수가 부정적 현실에 맞서는 정신적 태도를 강조하는 현일의 말에 대해 냉소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군.
- ③ ㉢에서는 현일이 사회인으로서 책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일을 계획하는 데 현일의 마음을 아프게 한 병수의 말이 영향을 주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군.
- ④ ㉣에서는 현일이 자신의 조언에 대한 병수의 반문과 관련해 자신과 병수를 구분하고 병수가 자신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군.
- ⑤ ㉤에서는 병수가 자신을 염려해 주는 마음에서 현일이 했던 말의 의미를 헤아려 보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군.

어느 여름날 나는 얼음과자를 사 먹기 위해 아버지의 지갑에서 천 원짜리 한 장을 훔쳤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눈치채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압도적이었다. 천 원짜리가 한 장만 있었다면 몰라도 다섯 장이나 있었다. 다섯 장 가운데 한 장 없어진 걸 어떻게 안단 말인가. 아버지가 그렇게 꼼꼼한 사람은 아니지 않은가. 돈을 빼내고, 얼음과자를 사기 위해 달려가고, 마침 그 달콤하고 차가운 얼음과자를 입에 넣고 빨 때까지 나의 범죄가 들통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으로 충만해 있었다. 그 단단한 확신의 원천은 욕망이었다. 달콤하고 시원한 얼음과자를 입에 넣고 빨아먹고 싶은 너무 큰 욕망이 염려와 불안을 잠재웠다. 그러나 얼음과자의 부피가 줄어들고 숨어 있던 막대가 드러나면서 염려와 불안은 서서히 깨어났다. 그렇게 단단하던 확신은 어느 순간 얼음과자 녹듯 녹아 흘렀다. 아버지가 천 원짜리 한 장 없어진 걸 눈치채지 못할 리가 없다는 쪽으로 생각이 급격히 기울었다. 안도의 구실이 되어 주었던 다섯 장이라는 지폐의 숫자도 다르게 해석되었다. ㉠천 원짜리가 고작 다섯 장밖에 없었지 않은가. 다섯 장 가운데 한 장 없어진 걸 어떻게 모른단 말인가. 아버지가 그렇게 주의력이 없는 사람은 아니지 않은가. 얼음이 녹아 손등으로 흐르고 얼음 속에 숨어 있던 동그란 막대가 거의 다 드러날 즈음 얼음과자는 내 입 안에서 다만 얼얼할 뿐 더 이상 아무 맛도 내지 않았다. 잊고 있었던 두려움이 서서히 몰려왔다. 막대를 빨고 있는 내 모습을 본 친척 누나가 돈이 어디서 나서 그걸 사 먹느냐고 물었을 때 내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누나는 고자질을 할 것이다. 아버지가 지갑의 돈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는 건 시간문제일 뿐이다. ㉡손에 들고 있는 얼음과자의 막대가 몽둥이처럼 여겨져서 나는 얼른 길바닥에 버렸다.

그러자 이내 학교 선생님과 같은 반 친구에게 품었던 것과 같은 바람이 자연스럽게 되살아났다.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 ㉢그 바람은 거의 무의식적인 것이었다. 나는 내가 무얼 원하는지도 분명하게 알지 못했다. 그저 종아리와 엉덩이에 떨어질 몽둥이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마음속의 바람이 하필이면 그때 이루어졌다.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아니, 돌아오긴 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나를 야단칠 수 없는 몸으로 돌아왔다. 아버지가 타고 있던 이웃 어른의 트럭이 언덕 아래로 굴렀다고 했다. 아버지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운전을 한 이웃 역시 취한 상태였다. 아버지가 취한 것은 괜찮지만, 운전자가 취한 것은 괜찮지 않았다. 병원에 옮겨진 아버지는, 의식을 잃은 채 일주일을 살았다. 그리고 천 원의 행방을 따지지 않고, 따질 수도 없는 곳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아버지의 죽음으로 충격에 빠진 ‘나’는 큰액에서 살게 되고, 큰아버지의 도움으로 대학에 진학했다. 이후 방위병으로 근무하기 위해 고향에 내려온 ‘나’는 동갑내기 사촌인 규와 함께 지내며 소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내 신경의 어떤 부분을 건드린 것은 소설 속의 소설가, 나아가 그 소설을 쓴 소설가가 그 지루하고 장황한 자기변명을 끈질기게 되풀이함으로써 얻어 내려 하고 있는, 마침내 얻어 냈을 효과였다. 확실하고 또렷하게 그 효과의 이름을 부를 수는 없지만, 그 순간 나는 소설을 왜 쓰는지 온전히 이해했다고 느꼈다. 어떤 의식의 반영이었는지 분명치 않은 채로 나는 문득 그 소설을 한 권의 일기장처럼 인식했다. 아마도 소설가는 따로 일기를 쓰지 않겠구나, 적어도 이 소설가는 따로 일기를 쓸 필요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여름 한낮 폭우가 쏟아지듯 느닷없이, 그야말로 불쑥 덮쳤다. 폭우는 조금 더 쏟아졌다. 나는 낡은 일기장을 버리고 새 일기장을 가지고 싶어졌다. 그것은 매우 당황스러운 충동이었다. 생각

해 보지 못한 의외의 열망에 사로잡혀서 나는 무언가를 끼적이기 시작했다. 그것이 소설이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소설이 아니라 일기, 국어 영역 ㉤새로운 방식의 일기를 쓴다는 의식에 붙들려 있었을 뿐이었다. 나는 우선 숙제를 하지 않은 날 아침, 담임 선생님이 아파서 학교에 나오지 못하거나 갑작스럽게 전근을 가는 상상을 하는 장면부터 써 나갔다. 학교 앞 가게에서 구슬 몇 개를 훔치는 이야기도 썼다. 우연히 눈이 마주친 같은 반 친구의 눈빛에서 시작된 견갑을 길 없는 불안과 두려움에 대해서도 썼다.

.....그가 ‘우리 반 반장은 도둑놈이래요’ 하고 떠들고 다니는 장면이 머릿속에서 반복적으로 영사되는 바람에 미칠 것 같았다. 어떤 일인지 그는 그런 소문을 퍼뜨리지는 않았다. 그런데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언제 도둑놈 소리를 듣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더 불안하고 무서웠다. 나는 그 친구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간절하게 바라기 시작했다. 아픈 죽든(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하고 탄식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그러나 특별히 내 머릿속에만

[A] 악마가 살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다. 사실 꼭 악마에게 떠넘길 일도 아니다. 나는 어린아이들이 순진하다는 믿음은 어른들이 내놓고 속아 주는 미신이라고 생각한다. 아니, 순진하다고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순진함은 때로, 그것이 악인 줄 모르고, 왜냐하면 순진하니까, 악마를 연기하곤 한다. 악마가 순진함의 외양을 가지고 있든, 순진함이 악마의 내용을 가지고 있든 무슨 차이란 말인가!) 어떻게든 사라져 버리라고 주문을 외기도 했다. 물론 내 바람과 주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는 밤에 쓰고 아침에 출근했다. 지난밤에 쓴 글을 다음날 밤에 지우고 다시 쓰는 일을 반복했다. 어떤 부분은 열 번도 더 고쳐 썼다. 중간에서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도 했다. 문장은 낮은 포복으로 아주 조금씩 나아갔다. 문장을 쓰는 동안 내 안에서 드러내려는 욕구와 은폐하려는 욕구가 치열하게 싸운다는 걸 나는 알았다. 문장들은 서로 부딪치고 충돌하고 갈등했다. 그 때문에 모순에 가득 찬 피투성이의 문장들이 만들어졌다. 앞에 쓴 문장을 덮기 위해 새로운 문장을 고르는 식의 글쓰기는 진을 빼내는 작업이었다. 나는 피곤과 수면 부족과 허기 때문에 고통스러웠지만, 이해할 수 없는 가학적 열망에 붙들려 끈기 있게 문장들과 싸웠다. 무엇이 썩 것 같은 시절이었다.

- 이승우, 「오래된 일기」 -

33. 윗글의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제적 형편 때문에 소설가의 꿈을 포기했다. ② 어릴 적 친척 누나와 함께 아버지의 돈을 훔치곤 했다.
- ③ 방위병으로 근무하면서 아버지가 죽게 된 이유를 알게 되었다.
- ④ 학교 앞 가게에서 구슬을 훔치고 난 뒤 불안감에 사로잡혀 지냈다.
- ⑤ 가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를 오랫동안 원망했다.

34.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간 이동에 따라 변화하는 인물의 심리를 추적하고 있다.
- ② 인물이 주목한 다른 인물들의 과오에 대한 평가를 나열하고 있다.
- ③ 인물들 간의 외적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④ 동시적 사건들의 병치로 사건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과거의 일에 대한 내적 목소리를 삽입하여 인물 자신의 행위를 조명하고 있다.

35.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지갑 속 천 원짜리 다섯 장에 대한 ‘나’의 인식에 변화가 생겼음을 알 수 있다.
- ② ㉡ : 자신이 저지른 행동을 후회하며 ‘나’가 두려움을 느꼈음을 알 수 있다.
- ③ ㉢ : 아버지에 대한 ‘나’의 바람이 오래도록 지녀 왔던 생각임을 알 수 있다.
- ④ ㉣ : ‘나’가 글쓰기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된 계기가 갑작스러우면서도 강렬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 ⑤ ㉣ : ‘나’가 소설을 쓰고 있다는 의식 없이 자신을 돌아보는 글을 쓰는 데 몰두하였음을 알 수 있다.

36.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인간의 내면에 자리한 죄의식은 서사의 출발점이 되고 서사를 지속하게 하는 힘이 될 수 있다. 자아 성찰을 바탕으로 하는 소설 쓰기는 자아의 치부를 드러내려는 욕망과 은폐하려는 욕망의 힘겨루기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과정은 자기 변명을 통해 고백의 부담을 덜면서 자기 정화를 경험할 수 있게 해 준다.

- ① ‘나’가 ‘소설을 왜 쓰는지 온전히 이해했다’는 것은, 소설 쓰기가 자기 변명을 통해 자기 정화를 경험하게 할 수 있다는 ‘나’의 생각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나’가 ‘새 일기장을 가지고 싶어’진 것은, 담임 선생님, 친구, 아버지와 관련하여 ‘나’가 느끼고 있는 죄의식이 서사의 동력이 되었기 때문이겠군.
- ③ ‘나’가 ‘다시 쓰는 일을 반복’하며 ‘열 번도 더 고쳐 썼다’는 것은, ‘나’가 치열한 자아 성찰을 바탕으로 소설 쓰기를 지속하였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나’가 ‘모순에 가득 찬 피투성이의 문장들’을 ‘만들어’ 냈다는 것은, ‘나’의 소설 쓰기가 드러내려는 욕망과 은폐하려는 욕망의 힘겨루기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말해 주는 것이겠군.
- ⑤ ‘나’가 ‘가학적 열망에 붙들려’ ‘무엇에 썬 것 같은 시절’을 보낸 것은, 소설 쓰기가 수반하는 피곤과 수면 부족 등의 육체적 고통이 ‘나’의 고백의 부담을 덜어 주었기 때문이겠군.

술이 알맞게 되었을 때, 청년 신사는 노래를 중지시키고, 예의 청산유수식 구변을 토하기 시작했다. — 농촌 경제가 어떠니, 구태의연한 영농방법을 버리고 근대화를 해야 되느니,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들의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느니, 또 도시에 주택단지 공업단지가 서듯이 농촌에는 식량단지, 채소단지, 심지어 돼지단지까지 있어야 하느니 등, 그야말로 먼 앞날을 내다보는 ㉠유익한 얘기들이 꼬리를 물 듯 계속되었다.

— 옛날에는 권업계 서기요 지금은 산업계 서기들이 하는 말을 수타 들어왔기 때문에, 허 생원도 대강 짐작은 갔었지만, 결국 귀에 남는 것은 무슨 단지 단지 하는 새로운 말뿐이고, 청년이 말하는 〈먼 앞날〉보다 우선 코앞에 다가 있는 〈사는 문제〉가 더 절박했다.

[A] “허 선생님은 이 고장 출신이시고, 또 누구보다 이곳 사정을 잘 아실 뿐 아니라 이해도 깊으실 터인 만큼 —”

드디어 청년 신사는 화제를 슬쩍 딴 데로 돌리려 하였다.

“야?”

— 허 생원은 난생 처음 듣는 〈선생〉칭호와 말공대에 잠깐 어리둥절하였지만, 경계심이 갑자기 얼굴에까지 나타났다.

“㉡예, 직 누구보다도 이해가 많으실 줄 알기 때문에…….”

청년은 약간 의외인 듯한, 그래서 다소 거북한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러니 우짜란 말입니까?”

허 생원은 그 부리부리한 눈으로 청년 신사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직, 이곳 하천부지 편인데 이번 정부 정책에 따라서…….”

청년은 〈직〉이란 말을 곧잘 썼다. 〈직〉하고는, — 정부의 정책에 따라 그곳에 **새로운 농업단지**를 조성키 위하여, 그 방면에 연구가 깊으신 서울 **모 유력자가 그 일대의 〈휴면법인토지〉를 도통 쓰게 되었다**는 이야기 — 라기보다 바로 **통고 비슷한 말**을 했다. 그리고 능글맞게 덧붙여서, — 워낙 이 지방 연고자들의 사정을 잘 짐작하시는 분이 돼서, 섭섭지 않을 정도의 위자료랄까 동정금이랄까를 내게끔 돼 있다는 말까지 했다. 말하자면 안 내도 될 걸 그런 선심까지 쓴다는 말투였다.

“머 동정금을 내? 누가 그런 거 달라 켜던강? 그래 이곳 사정을 잘 안다는 양반이 **멸절한 남의 땅을 맘대로 뺏아?**”

허 생원은 참다못해 분통을 터뜨렸다. 말하는 턱이 덜덜 떨릴 정도였다.

“㉢글쎄요, 휴면 법인 재산이라 안갑니까. 그러니까 실지는 국유지였지요!”

청년은 내치 능글능글한 태도를 고치지 않았다.

“머 국유지라?”

허 생원은 한결 사납게 쏘아보더니,

“그래, 국유지면 서울 놈들만 가지라 카는 법도 있나? 근 **삼십 년이나 논밭을 치고 갈아온** 우린 우짜고? 택도 아닌 소리! 그래, 청년은 젊은 나이에 무슨 할 일이 없어서 그따위 놈들의 비선가 먼가를 하며, 그런 백성 올리는 심부름만 하고 댕기능가?”

“말조심 하시오!”

청년 신사도 결국 반말에 안색을 달리했다. 약간 치제진 눈초리에 숫제 경멸의 빛까지 담아 보였다.

“㉣말조심—? 그기 누가 할 소린데……?”

허 생원도 데데하게 물러설 눈치는 아니었다. 마주 쏘아보았다.

[중략 줄거리] 허 생원은 청년과 대치하다가 결국 청년을 때린 일로 파출소로 잡혀 간다.

〈법률〉에 가서는 농민은 약한 것이다. 때로는 평지*의 대궁이

보다 더 연약했다. 첫째는 몰라서 그랬고, 둘째는 왜놈 때부터 줄곧 당해 온 경험으로 봐서 그러했다.

붙들려만 가면 그만이었다. 고분고분히 지장을 찍지 않으면 당장 호통이고, 버티면 떡이 되게 마련이었다.

“㉤괜히 잘몬 건디뤘지! 서울에서 왔다문 대강 알아묵우알 깬데…….”

부락 사람들은 이렇게 걱정들을 했다. 그러한 부락 사람들의 말대로 허 생원은 쉬 놓여나오지를 못했다.

파출소에서든 그날 밤 일을 예사스럽게 다룰 수 없다 해서 곧 본서로 넘겼다.

허 생원은 폭행죄로 29일간의 구류를 살고 겨우 놓여나왔다. 정식 징역감이지만 서울 있는 그 유력자의 특별한 부탁으로 석방되는 것이니 그렇게 알라는 ㉥경찰의 훈계였다.

허 생원도 암말도 안했다. **촌사람들끼리 같으면** 그까짓 코피 정도는 **암것도 아닌데, 법도 사람 따라** 다른가, 그저 야속하고 억울할 따름이었다. 그렇다고 어디 가 하소연할 데도 없는 허 생원이었다.

‘용이란 놈만 살아 있더라도…….’

허 생원은 아직 유골도 돌아오지 않은 용이를 또 생각하는 것이었다.

어두운 구룻간을 벗어나도 걸음은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았다. 먼지가 폭신대는 신작로를 터벅거리면서 그는 내치 먼 월남 쪽 하늘을 녀 없이 바라보곤 하였다. 오봉산 위에서 울어 대는 빠국새 소리가 어쩔 월남이란 데서 숨진 아들의 뉘갯이도 생각되었다.

‘㉦그러나 녀석은 애비가 이렇게 된 줄은 모를 끼라…….’

허 생원의 부리부리한 눈에 느닷없이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남이 볼까 몇 번이나 손등으로 닦았다.

[B] 그의 집에는 보다 큰 불행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들의 말을 듣자, 그는 앓을 새도 없이 독 너머로 갔다.평지를 베어낸 자리에는 〈××특수 농작물 단지〉란 흰 팻말이 서 있었다. 하필 두엄이 쌓여져 있는 그의 논 가운데.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허 생원은 이내 집으로 돌아와서, 도끼를 찾아 들고 다시 들로 나갔다. 구룻간의 피로 따윈 생각할 때가 아니었다. 단번에 팻말을 쳐 넘긴 그는, 그길로 자기 들의 포플라 밭으로 달려갔다. 닥치는 대로 마구 찍어 댔다.

용이가 그걸 하나하나 심을 때 무어라 했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그저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둘 것인가 하는 생각**뿐이었다.

그 뻑뻑하게 자란 숲! 웬만한 서까래만큼씩한 이탤리 포플라들이 허 생원의 악지 센 **도끼질**에 사정없이 넘어갔다.

허 생원은 지쳤다. 우선 넘어진 나무들 밑에 삭정이를 모아 놓고 불을 질렀다. 불은 곧 다른 나무에도 옮겨 붙었다.

순식간에 강가 허 생원네 포플라 숲은 온통 불바다로 변했다. 새빨간 불기둥이 검은 연기를 뿜고 노을 진 저녁 하늘을 찔렀다. 허 생원은 미친 사람처럼 다시 도끼를 휘둘렀다. 나무를 내리치는 쩡쩡하는 소리가 불길 속에서 계속 들려왔다.

— 김정한, 「평지」 —

37. [A], [B]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장면을 빈번하게 전환하여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② [B]는 내적 독백을 통해 사건의 흐름을 지연시키고 있다.
- ③ [B]는 공간의 이동에 따른 인물의 행위를 제시하고 있다.
- ④ [A]와 [B]는 모두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내력을 소개하고 있다.
- ⑤ [A]와 [B]는 모두 주변 인물의 말을 통해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38. 서사의 흐름을 고려하여 ㉠ ~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허 생원의 반응을 뜻밖이라고 여기며 불편해 하는 청년의 태도가 나타난다.
- ② ㉡: 허 생원의 반박에 이전과 다른 태도를 보이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청년의 모습이 나타난다.
- ③ ㉢: 자신을 알보는 청년에게 날카롭게 반응하고 있는 허 생원의 모습이 나타난다.
- ④ ㉣: 허 생원이 겪고 있는 상황을 염려하는 부락 사람들의 심리가 드러난다.
- ⑤ ㉤: 죽은 아들을 떠올리며 자신의 처지를 서러워하는 허 생원의 심리가 드러난다.

39.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는 모두 허 생원이 주변 사람들과 유대감을 형성하게 하는 내용이다.
- ② ㉠과 ㉤는 모두 허 생원이 자신에게 이미 일어난 일을 수궁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 ③ ㉠은 허 생원이 다른 인물의 의견에 동조하는 근거이고, ㉤는 허 생원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체념하는 근거이다.
- ④ ㉠은 허 생원이 자신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내용이고, ㉤는 허 생원이 자신의 가치관에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내용이다.
- ⑤ ㉠은 허 생원이 자신에게 시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내용이고, ㉤는 허 생원이 자신이 직면한 상황을 확인하게 하는 내용이다.

40.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평지」는 1960년대 근대화로 인한 농민의 애환을 다루고 있다. 주인공은 정부 정책을 명분으로 삼는 자본가로부터 생활 터전을 빼앗기게 되고 이로 인해 고초를 겪는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인공은 농민이 사회 제도에서 상대적 약자이며 역사적으로 반복된 억압의 대상이었음을 깨닫고 농민의 입장이 배제된 불합리한 현실에 대해 분노를 표출한다.

- ① ‘새로운 농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모 유력자가 그 일대의 〈휴면법인토지〉를 도통 쓰게 되었다’는 것을 통해 정부 정책을 명분으로 삼는 자본가에게 농민이 생활의 터전을 빼앗기게 된 상황을 짐작할 수 있군.
- ② ‘통고 비슷한 말’로 ‘멀쩡한 남의 땅을 맘대로 뺏’는다고 여기는 것을 통해 근대화 과정에서 농민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은 상황을 짐작할 수 있군.
- ③ ‘국유지면 서울 놈들만 가지라 카는 법도 있’냐며 ‘삼십 년이나 논밭을 치고 갈아’왔다는 것을 통해 농민이 과거에도 억압적 상황을 겪었음을 짐작할 수 있군.
- ④ ‘촌사람들끼리 같으면’ ‘암것도 아닌’ 일에 ‘법도 사람 따라 다르다며 억울해 하는 것을 통해 농민이 사회 제도에서 상대적 약자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둘 것인가 하는 생각’으로 ‘도끼질’을 하고 ‘불’을 지르는 것을 통해 농민이 불합리한 현실에 분노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군.

오수길이가 먼저 용모에게 알은체를 했다. “위디 가나?”
“심심해서 예까지 나와봤구먼.”
용모가 다가가며 대꾸하자 조순만이라도 얼굴을 걷으며,
“장보러 나가남?”
하고 물었다.
“아침버텨م 장에 가봤자 별 볼일 있간디. 나이타에 지름이나
놓까 허구……”
[A] 하는데 옆에 있던 아이가 고개를 꾸뻑 하여 여겨보니 느낌
새 위뜸 고향성이 아들 성문이였다. 아이는 겨드랑이에 장끼를
물리고 있었다.
“웬 게냐. 니라 잡었데?”
용모가 물었다.
“으만무지루 췌녕쿨 올무를 해 났더니 오늘 아침에 가봉께
모가지가 움혀 죽었더라너먼그려.”
오가 아이 대신 그렇다고 일러주었다.
“잡었으면 앓구 있는 아버지나 묶어 디리지 위디 가지구 가
는 겨?”
용모가 나무라는 투로 한 말에 오는,
“학생이가 여적지 못 일어났나 뵈. 위디가 워째서 못 일어난
다냐? 누운 지두 달포 가차이나 될 텐디.”
하며 염려하였고 조는,
“원체 읍는 살림에 약을 먹을라니 되게 쟈는가 뵈. 담뱃값
허게 팔어 오라더랴.”
장끼를 어루만져가며 성문이 말로 대꾸했다.
“좀 들헌지 그저 그 타령인지, 나두 자주 못 들여다봐서……
니 아빠가 팔어 오라더란 말여?”
용모가 성문이더러 물으니 녀석도 그렇다고 대답했다.
“얼마나 나가나?”
조가 묻고,
“누가 팔어 봤으야지.”
오가 고개를 가웃하는데,
“삼천 원 아래루는 안 팔 거유.”
성문이가 어린 것답지 않게 흰소리를 했다.
“글쎄 말여, 드른 것이긴 해두 그 돈 주구 먹을 사람이 있으
까……”
[B] 용모는 막연하게 중얼거리고 나서 가던 길을 다시 이었는
데, 성문이가 졸래졸래 뒤따라오고 있었다. 용모가 성문이 손
에서 꿩을 넘겨 받아 든 것은 읍내 초입에 들어서기 직전이였
다. 그것은 물건을 흥정하기에는 애가 너무 어리고, 뿐만 아니
라 곁에서 말마디나 거들어 다다 한 푼이라도 더 받아 쥐게
해 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용모는 [뽕] 날갯죽지를 쥐고 앞뒤로 내둘거리며 장꾼들 틈으로
들어갔다. 보자는 사람만 나서면 아무라도 붙들고 흥정하여 웬만
하면 얼른 넘겨주고 아이를 일찍 들여보낼 셈이었다. 그는 하던
대로 먼저 어리전에 들렀다. 그날도 돼지 새끼 염소 닭 오리부터
역지로 젓 췌 강아지, 생쥐만 한 고양이 새끼까지 고루 나왔는데,
용모가 그곳을 먼저 찾아간 것은 꿩 임자가 있으리라고 여겨서가
아니라 장에 나오면 으레 거기서부터 둘러보았던 습관으로서였다.

[중략 줄거리] 장터에서 ‘용모’는 꿩을 잡았다는 오해로 조사를 받는다.
경찰은 용모를 폭행하고, 자신의 추측대로 진술서를 작성한다. 결국 용모는
수령 금지 조치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다음 차례가 용모였다. 용모는 대답을 하고 일어서면서,
“암만 생각해 봐두 말여, 고연히 덧넬 게 아니라 내가 현
것이라구 뒤집어쓰는 수밖애 읍졌다.”
내게 꺾속말을 하고 나갔다. 그가 움직이자 새삼 점심에 마신

술 냄새가 물씬했다. 판사는 기록을 한눈으로 훑고 나더니,
“야생 조류나 야생 동물뿐 아니라 입산 금지와 낙엽 채취를
비롯해서 자연을 보호하자는 것이 우리 모두의 당면 과제라
는 것을 알 만한 분이 왜 이런 짓 했어요?”
[C] 판사는 앞서보다 훨씬 부드러운 어조였으나 그만큼 위엄이
서리어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용모는 거둑 읍한 뒤에도 잔뜩
지르숙어 가지고 입을 못 열고 있었다.
“꿩이 천연기념물은 아니지만, 비록 참새 한 마리라도 그것
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보호하자는 건데, 보호하는
사람 따로 있고 해치는 사람 따로 있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판사가 거둑 나무라서야 용모가 대답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주
녹이 들었거나 겁에 질린 음성이 아니었다.
“물런 그렇지유. 그러나 말입니다, 꿩은 말입니다, 과연 현재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두 문제란 말입니다. 보
호할 건 보호허야 마땅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그렇지 않
단 말입니다. 실지 농작물을 망치는 해조는 으레 참새만 긴
줄 아시는데 말입니다. 꿩의 피해는 말입니다, 사실 농군에
게는 말입니다, 훨씬 심각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그냥 참
고로 아시라구 말씀드리는 말입니다.”
[D] 용모는 아무것도 꿀릴 게 없다는 투로 원기 있게 말했다.
그것은 술기운 덕도 아닌 것 같았다. 지은 죄 없이 고개 조이
고 살아온 사람이 오랜만에 췌보는 기지개와 같은 몸짓으로
믿어야 될 성싶었다.
판사가 고개를 가웃하고 나서 용모를 췌아보며 말했다.
“그래서 꿩은 잡아도 무방하다, 해조를 퇴치했다— 이겁니
까?”
“도깃자루 감으로 나무를 찍을 때는 쥐고 있는 도깃자루를
기준해서 찍는다는 말도 있지만 말입니다, 물런 그건 아닙니
다.”
“뽕가 아니오? 당신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 등쌀애 야생 동
물이 안 남아나니까 보호하자고 하는 것 아니오?”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디유, 제가 뽕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
니라 말입니다, 예. 제가 잘못된 것은 제가 벌을 받아야 읍
습니다. 예, 받겠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저도 법의 보호를
받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는지 모르겠습
니다마는……”
“괜찮으니까 당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오?”
“예, 그러믄유. 여기는 바깥허구 달려서 여러 가지 것을 보
호허는 법정이라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는디 말입니다. 동
물에 물격이 있으면 저두 인격이 있으니 말입니다, 저두 야
생 동물— 아니 그게 아니라, 야생 인간인디 말입니다…… 야
생 인격이 물격보다두 거시기허면 말입니다…… 그럴 수는
읍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D] 나는 용모의 뒷모습을 지켜보다가 문득, 물은 부드러운나
추운 겨울에 얼면 굳어져 부러진단던, 어디서 들은 말이 떠올
랐다.
판사가 기록집을 췌혀놓으며 판결했다.
“피의자가 개전의 정이 전혀 안 보여…… 법정에 출두하는데
술애 취해 가지고 와서 횡설수설하고,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없으니까…… 이런 사람 일벌백계로 다스려서 본보기를 삼아
야 해요. 벌금 2만 원—”
- 이문구, 「관촌수필」 -

41.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조순만은 성문이 장에 가는 이유를 용모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 ② 용모는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성문을 돕겠다고 나서고 있다.
 - ③ 오수길은 고향성이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성문의 말을 통해 알게 된다.
 - ④ 고향성은 아들을 장에 보내 자신의 병을 치료할 약을 사 오도록 한다.
 - ⑤ 성문은 조순만의 말을 듣고 거래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게 된다.

42. 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용모가 농민으로서의 지난 삶을 반성하는 계기가 된 소재이다.
 - ②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용모의 이기적 욕망이 투영된 대상이다.
 - ③ 마을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용모의 처지를 드러내는 소재이다.
 - ④ 용모에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안겨 주는 사건의 원인이 되는 소재이다.
 - ⑤ 흥정의 상대를 찾으려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는 대상이다.

43. [A]~[E]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 ‘여겨보니’와 ‘성문이었다’를 보면,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다른 인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B] : ‘해 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를 보면,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행동과 관련된 의도를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C] : ‘판사는’과 ‘용모는’으로 시작되는 문장을 보면, 서술자가 다양한 인물의 시선을 통해 사건을 입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D] : ‘아닌 것 같았다’와 ‘믿어야 될 성싶었다’를 보면,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발화에 담긴 의미를 추측하여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E] : ‘지켜보다가’와 ‘떠올랐다’를 보면, 품 속의 서술자가 인물을 관찰하며 떠오른 생각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4. 다음은 이 작품이 발표된 시기의 신문 기사이다. 이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OO일보1974년 Δ월 Δ일

조수 보호는 했지만 농가 보호는 어디로

지난 1972년부터 조수 보호 정책에 따라 야생 동물의 전면적인 수렵 금지 조치가 시행 중이다. 해당 조치 이후 야생 동물 보호라는 목적은 이루었지만, 이 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인식은 부족한 실정이다. 수렵 금지 조치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강제적 규제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 또한 거세다. 농가 1가구당 월 평균 수입이 3만 원을 웃도는 것을 감안하면 벌금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늘어난 야생 동물로 인한 경제적 피해도 심각한데, □□군의 경우 농작물 생산량이 계획보다 30% 정도 감소할 전망이다. 농촌 현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농민 보호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진정도 쏟아지고 있어, 야생 동물을 자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 ① 조수 보호 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인식이 부족했다는 기사 내용을 보니, 용모는 울무에 잡힌 꿩을 파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겠군.
- ② 야생 동물의 자율적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기사 내용을 통해, 판사가 용모에게 자연 보호가 당면 과제임을 부드러운 어조로 말하는 의도를 파악할 수 있겠군.
- ③ 늘어난 야생 동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심각했다는 기사 내용을 통해, 용모가 꿩도 농작물을 해치는 해조이므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말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겠군.
- ④ 강제적 규제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이 거셌다는 기사 내용을 통해, 자신도 법의 보호를 받고 싶다고 반발하는 용모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겠군.
- ⑤ 농가 1가구당 월 평균 수입이 3만 원을 웃돌았다는 기사 내용을 보니, 판사가 용모에게 내린 2만 원의 벌금형이 용모의 가계에 부담이 될 수 있겠군.

2424 혹은 5454번의 전화번호를 보디에 커다랗게 써 붙인 삼륜차 또는 픽업이 대충 비슷비슷한 내용물들을 실은 채 속속들이 닿고 있었고, 검색 유니폼의 관리인들이 요소 요소마다 늘어선 채 똑같은 말들을 외쳐 대고 있었다.

일테면,

“차는 현관 옆으로 바짝 붙여 주십시오!”

[A] “호실 키는 임시 관리 사무소에서 입주증과 교환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리 사무소는 217동과 219동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계단이 혼잡하오니 도착순대로 짐을 올리시고, 화장실 및 주방의 부착물은 248동과 249동 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삼륜차 위에서 나는 한동안 멍청하게 흔들리고만 있었다. 수백 수천의 똑같은 **5층짜리 콘크리트 건물군**과 그리고 그 협곡 사이사이마다 출렁이고 있는 입주자들의 행렬……。 그것은 실로 기이한 대조였다. 나는 무거운 압박감과 마음 붙일 곳 없는 황량함을 동시에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차가움, 견고함, 메마름, 췌내 따위**를 나는 그 엄청난 규모의 기하학적 공간에서 **무섭게 의식**했고, 또 한편으로는 흡사 피난 행렬과도 같은 입주자들의 행렬에서 우리들의 저 은밀하고 곱광내 나는 개인적 삶의 모습이 백일하에 드러나 버린 듯한 황량함을 현기증 나게 맛보아야만 했던 것이다. 냉엄한 질서와 유약한 삶 — 결코 동질적일 수 없는 이 양자의 만남이 무언가 엄청난 현상을 불러일으키리라는 것을 나는 무섭게 예감했다.

[B] 나는 실없는 웃음을 비실비실 흘리기 시작했다. 입구를 들어서면서부터 내 마음속에 달라붙었던 저 여릿한 감정이 일종의 형언키 어려운 계면적응으로, 그것이 다시 모호한 부끄러움으로 내 전신을 휘감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내의 즐거움은 컸다. 비록 월세를 물고 사는 임대 아파트이기는 할망정 저 일반 독립가옥에서의 셋방살이와는 사정이 한결 달랐기 때문이었다. 두 개의 방과 좁은 마루와 그리고 부엌과 다용도실과 수세식 변소 하나가 전부인 열서너 평의 공간이기는 했다. 하지만 바깥 계단 쪽의 문만 닫아걸면 실로 자유스러운 생활 공간이었던 것이다.

“주인택에 인사치레를 하지 않는 것만도 마음 편해 좋겠다 야.”

이삿짐을 날라 준 친구가 잘도 지적했듯이 그 열서너 평의 공간 안에서는 **그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다**. 이사를 들 때마다 주인에게 각듯이 인사를 댐어야만 하던 고역으로부터 나는 풀려났고, 부잡스러운 **내 아이들**도 이제는 더 이상 **억울한 제재를 당할 위험이 없어졌다**. 그러므로 이런 이유들까지 뭉뚱 포함하여 아내의 즐거움은 참으로 커다란 것이었다. 옆에서 보고 있기가 민망스러울 만큼 아내는 우리가 차지한 그 열서너 평의 공간에 감격해 있었던 것이다. 나는 부풀어 오른 아내의 마음을 터뜨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나의 저 모호한 감정 — 쑥스러움이라 할지, 부끄러움이라 할지, 또 혹은 일말의 수치심이라고나 할지, 명확히 종잡을 수 없는 그 감정을 은밀히 숨겨 둘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었다.

(중략)

그런대로 아내는 서서히 새로운 생활 환경에 적응해 가는 듯했다. 1주일에 한 번씩 물걸레로 계단을 닦고 공휴일 아침에는 화단의 휴지들을 주워 내며, 매월 1일엔 새마을 청소를 위해 같은 현관 안에 사는 열 세대의 주부들과 함께 합동 작업을 벌이곤 했다. **공동생활에 필요한 수칙**들은 이미 가가호호의 출입문 안쪽에 나붙어 있었고, 그 밖의 공지 사항들은 반상회나 대형 스피커를 통해 수시로 시달되었다. **어머니회**가 만들어지고 **어머니 배구팀**이 창단되고 **어머니 합창단**도 조직되었다. 폐쇄

된 버스 정류소 부활을 위한 연판장 운동이나 불우 이웃 돕기를 위한 자선 요리 강습회 또는 쓰레기통 공동 소독을위한 회합 등 각종 모임도 빈번해졌다. 모든 정보들 — 일테면부동산 시세며, 새로운 가전제품이며, 의상과 헤어스타일, 하다못해 당일 슈퍼마켓의 찬거리 종류와 값에 이르기까지 신속하게 전달되었다. 토요일 저녁엔 콩치 통조림이 동나고, 일요일 낮엔 돼지갈비가 불티났다. 앞의 경우는 다음날 야외로 행락 갈 사람들 타고, 뒤의 경우는 휴일에도 방구석에서만 죽치고 앉아 있는 사람들 때문이다. 월요일 아침은 단지가 죽은듯 조용한 대신, **화요일 오전은 원거리 시장에 나서는 아낙네들이** 삼삼오오 때 지어 단지를 빠져나간다. 그래서 처음 한동안 나는 실로 기이한 눈길로 그런 현상들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내 아내 역시 예외일 수가 없어서 종당엔 그 동일한 가락속으로 거침없이 사랑살랑 헤치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는 또한 번 **실없는 웃음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런 유의 아파트촌이 지니고 있는 속성을, 내가 어느 정도 무서운 것으로 의식하기 시작한 것은 대체로 그 무렵부터였다. 이제 국민학교 1학년짜리인 첫째 녀석이 언젠가, 막 귀가한나를 잡고 때를 썼던 것이다.

“홈런왕 사 줘 아빠. 나두 홈런왕 사 줘.”

녀석이 하두 다급하게 졸라 대는 통에 나는 어안이 병병해졌다. 우선 구두라도 좀 벗고 보자고 해도 영 막무가내였다. 아내는 말없이 웃고만 있는 것으로 보아 녀석과는 이미 담합이 된 모양이었다.

“도대체 그 홈런왕이라는 게 뭐 하는 거냐?”

내가 물기가 무섭게 녀석은 밖으로 튀어 나갔다. 그리고는금세 대여섯 명이나 되는 조무래기들을 이끌고 당당하게 나타났는데, 놀랍게도 그들의 손에는 똑같은 플라스틱 완구가 들려있는 것이었다. 꼼짝없이 나는 항복하고 말았다.

“야, 나도 홈런왕이다!”

나로부터 천 원권 한 장을 전리품으로 얻은 녀석은 다시 때거리들을 몰고 계단을 쿵쾅거리며 내려가 버렸다. 다음날 출퇴근길에서 나는 **한결같이 홈런왕을 휘두르며** 내닫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얼마든지 구경할 수가 있었다. 말하자면 이것이우리 아파트촌의 분위기이자 속성이었던 셈인데 그 후에도 녀석은 **1주일이 멀다 하고 매번 새로운 것을 요구**해 왔고, 나는 또 그때마다 속수무책으로 약탈을 당해야만 했다.

“아빠, 태극호 사 줘. 봐, 애들두 다 가졌잖어? 나도 갖고 싶단 말야, 응 아빠…….”

녀석의 이 당당한 요구를 거절할 만큼 나는 마음이 독하지못하다. 거절은커녕, 때때로는 품절이 되어서 녀석이 시무룩하게 빈손으로 돌아올 때면 나는 녀석의 상심을 달래느라 전전긍긍하곤 했던 것이다. 그런 날이면 나는 영락없이 녀석의 놀이 상대가 돼야만 하는데, 왜냐하면 어느 패거리도 녀석을 끼워 주지 않기 때문이었다.

아파트가(街) 특유의 속성에 대해 내가 은연중에 ㉠**두려움**을 의식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 점에 있는 것이었다.

- 이동하, 「홍소」 -

45.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이사 오면서 생긴 모호하고 알 수 없는 감정을 아내에게 드러내지 않았다.
- ② ‘나’는 아내의 표정을 통해 아내가 첫째 녀석의 요구를 미리 알고 있었음을 짐작하였다.
- ③ 첫째 녀석은 아이들을 동원하여 자신의 요구가 정당하다는 것을 ‘나’에게 보여 주었다.
- ④ 아파트 사람들은 주말이 되면 특정한 식품을 소비하면서도 그런 현상을 기이하게 여겼다.
- ⑤ 아내는 독립가옥의 셋방살이보다 월세를 물고 사는 임대 아파트의 삶이 더 낫다고 여겼다.

46. [A]와 [B]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장면에 대한 관찰을 중심으로, [B]는 인물의 복잡한내면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② [A]는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중심으로, [B]는 인물의 행위에 담긴 의미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③ [A]는 인물들 간에 심화되는 갈등을 중심으로, [B]는 인물이 겪는 내적 갈등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④ [A]는 인물들 간의 대화에 담긴 의미를 중심으로, [B]는 인물이 특정 행동을 한 의도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⑤ [A]는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심리 변화를 중심으로, [B]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심리 변화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47.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무리에 속하지 못하는 이를 소외시키는 배타적 분위기를 의식했기 때문이다.
- ② 패거리를 지어 다니며 타인을 따돌리는 첫째 녀석의 폭력성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 ③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매번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이기적 분위기를 의식했기 때문이다.
- ④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할 때마다 크게 상심하는 첫째 녀석의 유약함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 ⑤ 첫째 녀석의 무리한 요구를 물리칠 만큼 독하지 못한 자신의우유부단함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48.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1970년대에 등장한 규격화된 아파트는 새로운 주거 문화를 형성하여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 아파트는 독립성과 편의성을 주기도 하였지만, 집단화된 생활과 유행에 휩쓸리는 문화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홍소」에서는 이런 아파트의 속성과 낯선 주거 환경에 맞닥뜨린 인물들의 반응이 나타나 있다.

- ① ‘그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고 ‘내 아이들’이 ‘억울한 제재를 당할 위험이 없어’진 것에서 아내는 아파트가 주는 독립성에 흡족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군.
- ② ‘공동생활에 필요한 수칙들’이 집마다 붙어 있고, ‘어머니회’, ‘어머니 배구팀’, ‘어머니 합창단’ 등이 만들어지는 것에서 집단화되어 가는 아파트 생활을 엿볼 수 있겠군.
- ③ ‘똑같은 5층짜리 콘크리트 건물군’을 보며 ‘차가움, 견고함, 메마름, 췌내 따위’를 ‘무겁게 의식’하는 것에서 규격화된 아파트에 대한 ‘나’의 정서적 반응을 엿볼 수 있겠군.
- ④ ‘아이들’이 ‘한결같이 흠뻑왕을 휘두르’고 첫째 녀석이 ‘1주일이 멀다 하고 매번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것에서 아이들조차 유행에 휩쓸리는 아파트 문화의 일면을 엿볼 수 있겠군.
- ⑤ 다른 ‘아낙네들’처럼 ‘화요일 오전은 원거리 시장에 나서는’ 아내를 보며 ‘실없는 웃음을 흘리’는 것에서 ‘나’가 아파트의 편의성을 수용한 자신을 못마땅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군.